

100발100중이 만든 EBS 수능특강 분석서

2024년 학교시험·수능 대비

# 수능특강 문학 평가문제집

문학(상)

정답 및 해설

## PART 1 | 교과서 개념 학습

### 01 추일서정

본문 010~01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특정한 인물이 청자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 05 낯설고 참신한 비유를 동원하여 가을의 도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된 풍경은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는 황량하고 삭막한 것이다.
- 07 도시적·이국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 09 자연물과의 비교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도 드러나지 않는다.

#### 내신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④ 4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1 자연물인 ‘낙엽’, ‘길’을 인공물인 ‘풀—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구겨진 벡타이’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황량함, 초라함,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작과 끝 부분의 의미나 구조를 유사하게 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의미를 강조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거나 변주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가을’, ‘일광(日光)’, ‘두 시’ 등 시간과 관련된 시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기도 없다. ③ ‘풀—란드’, ‘자욱—한’, ‘호울로’ 등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2 구불구불(구깃구깃)하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길’을 도시적 소재인 ‘구겨진 벡타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길’을 도시적인 이미지와 연관 짓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표현한 것은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라기보다는 도시 자체의 초라함이나 황량함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망명정부의 지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낙엽’을 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낙엽에서 연상되는 무상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을이 되어 잎을 모두 떨군 ‘포플라 나무’ 가지의 앙상한 모습을 ‘근골’에 비유하여 황량함과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허공’을 향해 돌팔매를 띄우는 행위는 황량한 생각을 버리기 위한 것이므로, ‘허공’은 황량한 생각을 드러내는 공허한 이미지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돌팔매’의 하강 곡선을 ‘고독’하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이 글은 ‘황량한’, ‘고독한’ 등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반면, <보기>는 객관적 상관물인 ‘빈 배’나 ‘짙은 갈매기’를 통해 화자의 정서(외로움과 고독)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도시 문명을 황량한 것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보기> 역시 전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혹은 그를 통해 느끼는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으며, <보기>도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⑤ <보기>에는 ‘오락가락’이라는 의태어가 활용되었지만 이 글에는 의성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 02 백구야 놀라지 마라 / 백초를 다 심어도 /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본문 014~01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자연물인 ‘백구(白鷗)’를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을 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 03 화자는 임금에게 버림받은 상황을 백구와 놀 기회를 얻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12 화자는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요 개’의 잘못으로 전가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내신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⑤ 4 화자와 개의 표면적 갈등을 통해 화자와 오지 않는 입의 이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 「백구야 놀라지 마라」의 화자는 임금으로부터 버림받아 강호(江湖)로 가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있을 뿐, 그가 전부터 ‘백구(白鷗)’와 노니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성상(聖上)이 버리시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대나무로 만든 도구의 기능을 이별의 상황과 연결하여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하여 개 때문에 입이 오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중장에서 ‘미운 입’과 ‘고운 입’에 대하는 개의 상반되는 행동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2 「백구야 놀라지 마라」에서는 ‘내 아니로다’, ‘예 왔노라’에서, 「백초를 다 심어도」에서는 ‘붓대로다’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백구야 놀라지 마라」와 「백초를 다 심어도」에서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자연물에 인간사를 빗대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은 「백초를 다 심어도」에만 해당한다. ④ 실의적 표현은 「백초를 다 심어도」의 종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⑤ 「백구야 놀라지 마라」에서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3 화자에 대한 태도가 아닌, ‘미운 입’과 ‘고운 입’에 대한 ‘요 개’의 태도를 통해, 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초장에서 여러 개를 기르지만 ‘요 개’가 앞집다며 표면적인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면적으로는 입이 오지 않는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해해’, ‘버둥버둥’, ‘캉캉’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여남은이나’ 되는 다른 개들과의 비교를 통해 ‘요 개’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중장에서 미운 입과 고운 입을 대하는 ‘요 개’의 대조적인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03 해산 바가지

본문 018~02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몇 개의 삽화를 나열하고 있지도 않고, 과거와 현재에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도 않다.
- 08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노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시어머니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졌다는 것일 뿐, '나'는 그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10 '나'는 '차라리 풍오줌 치는 게' 덜 지겨울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 13 '나'의 시어머니는 말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경건한 의식을 행하였다.

#### 내신 대비 문제

1 ㉔ 2 ㉕ 3 ㉖ 4 '해산 바가지'는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손주들의 건강과 인병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생명 존중의 정신을 의미한다.

- 1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해산 바가지에 얽힌 추억을 상기하면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기로 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인공은 대화가 아니라 과거 회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③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작품 내부의 서술자는 맞지만, 시건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다. ⑤ 과거의 장면이 제시되고 있지만 삽화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 2 '나'가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갖게 된 감정은 동정심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지녔던 시어머니 역시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는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본 후 해산 바가지를 떠올리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려던 마음을 바꾸게 된다. ③ 해산 바가지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생명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사상을 보여 준다. ④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고통과 이에 뒤따르는 감정인 미움이나 피로감으로 인해 시어머니를 시설에 맡기려던 '나'가 해산 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정신을 떠올리고 이전과 다른 편만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으므로, 해산 바가지가 '나'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3 '나'는 아들, 딸에 상관없이 같은 대접을 받은 것에 서운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차별하지 않고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명을 받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어머니는 해산 바가지를 경건하게 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생명의 고귀함과 그 생명 탄생에 대한 경건한 자세'에 해당한다. ② 딸을 낳았다고 섭섭해하지 않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이다. ④ 시어머니가 아름다운 정신(생명 존중의 정신)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시어머니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 드리고 싶어 한다. ⑤ 예전에

는 '나'가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힘들어도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내색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04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엮보다

본문 023~02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7 서술자의 개입은 드러나지 않는다.
- 08 전기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 09 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란과 헤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 혼인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한 것이지, 한양으로 떠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 내신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① 4 해진 잠신

- 1 생의 아버지가 생의 종적을 찾을 수 없자 그가 죽은 줄 알고 허장을 쓴 후 탈상까지 마쳤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비현실적 사건이나 초월적 존재와 같은 전기적 요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2 양반인 생은 이별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이지만, 기생인 자란은 생과의 이별을 매우 슬퍼한다. 하지만 생과 자란의 이러한 모습은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생의 아버지가 생에게 첩을 두어도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에는 첩을 두는 것이 흔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생인 자란을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들이려는 것을 통해 당시 사회의 신분 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생이 자란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미처 버릴 것만 같아 자란을 찾아 떠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 욕망인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④ 생이 과거를 치르도록 권유하는 자란의 모습을 통해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생이 과거를 치르는 것은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에 해당한다.
- 3 생은 자란에게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걱정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생이 아버지의 장점을 언급하거나 그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지는 않다. ③ 생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고 있지 않다. ④ 생이 자란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아버지의 의견에 반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생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여 드러내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생각을 감춘다고 볼 수 없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6 비현실적인 공간을 무대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몽환적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08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 12 구포덕이 어부 A의 말에 놀라고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3 성삼은 거센 풍랑 속에서 부서 떼를 쫓아가는 곰치의 행동을 ‘미친놈!’이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의 집념에 감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내신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⑤ 4 ③: 목표, ⑥: 욕망

- 1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그랑께’, ‘그래서라우?’ ‘뭣이라고?’ 등 인물들이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③ ‘배, 뭇, 부서 떼, 그물, 뱃놈’ 등의 단어를 통해 인물의 직업이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간적 배경이 바닷가임을 알 수 있다. ④ 지시문의 사용이 빈번한 편으로, 이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⑤ 곰치가 거센 풍랑에도 쌍돛대를 달고 부서 떼를 쫓아가다 배가 뒤집혀 어부 A와 B에게 구조되는 사건이 어부 A와 B의 대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 2 뒤에 제시된 성삼의 “미친놈!”이라는 대사로 보아 거센 풍랑 속에서 쌍돛을 달고 고기 떼를 쫓는 곰치의 행동을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곰치의 집념을 존경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② 어부 A는 곰치를 구조하였다고 말하며 비통하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으로 곰치 외에는 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부 A는 도삼에 대해 묻는 구포덕의 질문에 난처해하며 성삼의 눈치만 보고 있다. ④ 도삼을 못 봤다는 어부 B의 말에 구포덕이 계속 되묻는 것은 도삼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술술이는 도삼과 연철을 다 못 봤다는 어부 A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심하게 오열하고 있다.
- 3 곰치가 자신은 안 죽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집념과 의지를 다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곰치는 아들 도삼이 아니라 만선에 대해 끈질긴 집념을 가지고 있다. ② 성삼이 곰치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곰치의 아버지와도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도삼의 죽음으로 인해 구포덕과 곰치의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도삼의 죽음 이후에도 곰치는 배를 탈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도삼의 죽음이 곰치가 모든 집념과 의지를 잃게 만드는 계기라고 볼 수 없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연보랏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과 같이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6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마 끝이 ~ 소박하고 무던한 한국의 마음 씨들을 감싸안고 있다.’에서 연경당을 의인화하고 있지만, 이는 연경당이 환기하는 수수한 분위기를 나타낸 표현이다. 한편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얼마 안 남은 우리 주택 건축사의 결정들은 ~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 09 ‘세련된 문방 가구들이 알맞게 이 장판방에 결들여졌을 것을 생각하면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지금, 아마 그만치 반실이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를 통해, 글쓰이는 연경당이 빈방으로 남아 있어 그 아름다움이 반감되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14 ‘물론 세계의 각 지역 간에 ~ 주택 문화만은 고격을 고수하지는 것은 아니다.’를 통해 글쓰이가 주택 문화의 고격 고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내신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① 4 우리 민족이 쌓아 온 생활 문화의 기념탑

- 1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경당이 건축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상상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연보랏빛 필터’에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담담하고 청초하게 떼를 활짝 벗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통해 연경당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② ‘한국 사람들의 꿈이 자라나고 노래가 자라나고 미술이 자라나고 또 아름다운 아들딸들이 자라났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사뿐히 고개를 든 ~ 한국의 마음씨들을 감싸안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다만 미끈한 굴도리 필자집에 알맞은 방주, ~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누어 주고 있는 듯싶다.’에서 알 수 있다.
- 2 글쓰이는 ‘뛰어난 재래 주택들은 살아 있는 민족 문화재로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했을 뿐, 이를 현대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 대궐적부터 있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 있을 뿐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이 고유한 한국 주택의 풍성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현재 주택에 충분히 도입되어야 하고,’에서 알 수 있다. ④ ‘아찔든 연경당은 충분히 아름답고 또 한국 문화의 결정 같은 것이라고 ~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가 바로 이 연경당인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 ~ 멋진 논의 주인공들을 적잖게 가졌던 것을 자랑해야겠다.’에서 알 수 있다.
- 3 이 글은 연경당을 통해, <보기>는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을 통해 전통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의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고줄 꼴라 보리니’에만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옛날의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의 ‘연경당의 아름다움은 5월보다 11월이 더 좋다.’에서만 봄보다 가을에 연경당이 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만 저고리의

정적인 우아함과 치마의 동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우리 주택 건축사의 결정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에만 전통적인 것이 사라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07 국예사

본문 038~04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긍정하고 있지도 않다.
- 08 현실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으며 내용도 사실적이다.
- 13 '나'의 가족에게 안뜰 변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정원에 거적 낚을 치도록 분부한 것은 노파이다.
- 15 오만 원을 가지고 가서 주인덕에게 사정을 한 것은 아내 혼자이다.

### 내신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① 4 노파의 비인간적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 1 [A]에서는 인물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서술자인 '나'가 아내에게 들은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타난 부분은 없다. ② '나'와 아내 사이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 다른 사건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③ 사실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④ '나는 간이 서늘해 몸을 느꼈다.' 등에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지만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 2 '나'가 무리하게 방세를 '오만 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집주인과 대립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난 생활 속에서 '방'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① 주인덕 부인이 '이 방'과 관련하여 '금 손목시계'를 언급하는 장면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피해자인 인간성을 드러낸다. ② '나'가 '노상'으로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서 중요한 공간인 '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④ '나'의 '아내'가 주인덕 '할머니'에게 잠자리를 내주면서까지 집주인에게 사정하는 것은 삶의 절박함을 보여 준다. ⑤ 주인덕 식구들이 넓은 방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 3 '나'의 아내가 오만 원을 가지고 가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것은 '소원 파위를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뵈.'이라는 의미의 '애길복걸(哀乞伏乞)'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③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④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⑤ 갑론을박(甲論乙駁):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 08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본문 043~04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 06 설화에서 온달은 신라군과 싸우다 죽지만, 이 글에서는 고구려군 반역자에 의해 죽는다. 또한 설화와 달리 이 글에서는 공주도 비극적 죽음을 맞는다.
- 12 부장의 머리에 피가 배어 있는 것을 통해 부장이 온달을 죽였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공주는 부장이 온달을 죽인 범인임을 알지 못한다.
- 16 공주는 장교를 엄한 태도로 꾸짖다가 "네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라며 분을 삭이면서 장교를 타이르고 있다.

### 내신 대비 문제

1 ④ 2 ② 3 이제 누구를, 때를 쓰십니까?

- 1 온모는 장교에게서 온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질 뿐 공주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함시다.",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을 살살이 가려내어 목을 베리라."라는 공주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②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라는 장수 3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③ "그곳에서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라는 부장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⑤ 공주는 "네가 어떻게 죽고 싶어서 이다지 방자하냐?"라고 장교를 호통치다가 "네가 아마 잘못 알고 ~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라고 하며 분을 삭이면서 타이르고 있다.

- 2 <보기>에서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장교의 위치가 2번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가)에 비해 장교의 위치가 1번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에서 그가 극적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가 (나)에 비해 대사와 공주의 거리가 가깝다. ② (가)에서는 장교·병사들이 공주·대사·온모와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는 반면, (나)에서는 두 집단이 나뉘어 있지 않다. ④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나)에서는 장교에 의해 온모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보기>에서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라고 하였으므로, 병사들이 (나)와 같이 2번 지역에 있는 것이 (가)와 같이 5번 지역에 있는 것에 비해 위압감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09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본문 048~052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웅졸하게', '얼마큼 작으나' 등 시어 및 시구의 반복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화자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10 3연에 화자의 과거 경험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웅졸한 삶의 태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 대비 문제

1 ① 2 ② 3 ① 4 절정 위

- 1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와 같은 물음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7연에서 '모래, 바람, 먼지, 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웅졸함과 무기력함에 대한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조금 짬', '얼마큼' 등의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④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에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합일을 이루는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① 뒤에 과거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웅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한 상황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는 경험이므로 정서의 변화를 찾을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서 있지'와 '앉고' 사이에서 행간이를 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주고 있다. ④ 힘 있는 자인 '땅주인'과 힘없는 자인 '이발쟁이'를 대비시켜 화자의 웅졸한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⑤ '얼마큼 적으나'를 반복, 변주함으로써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반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3 1연에서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설령탕집 주인이 아니라 '왕궁'으로 상징되는 절대 권력이다. 따라서 비속어의 사용은 설령탕집 주인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왕궁'을 비판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기비판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스스로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소시민성을 자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자신의 소시민적 삶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왔음을 '전통은 유구'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절정'에서 '비켜서' 있지 않고 그 '위에' 있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대항을 의미한다. 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갖게 된 비판 정신은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다.

PART 2 | 고전 시가

01 찬기파랑가 / 반월

본문 054~05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동일한 시구의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찬기파랑가」에는 그러한 반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 07 '기파랑'은 부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비애도 나타나나, 그와 의 재회에 대한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8 한시인 것은 맞지만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 10 옥거울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변화)은 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인생무상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 11 반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인물일 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② 4 ⑤ 5 ④ 6 ㉠: 젓나무 가지, ㉡: 눈 7 반월이 하늘에 떠 있고 그 그림자가 물에 비치고 있다.

- 1 「반월」은 '달'에 대한 감상을 노래한 작품이지만, 「찬기파랑가」는 '달'과 그 밖의 소재를 활용하여 대상을 예찬·추모한 작품이다. 또한 두 작품은 모두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② 「찬기파랑가」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달이 떠가는 모습을 흐느끼며 바라보고 있고, 「반월」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밝고 둥근 달을 바라보며 옥거울이 하늘에 걸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두 작품은 모두 달의 모습에 주목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 ③ 「찬기파랑가」에서 '달'은 '이슬을 밝'히는 존재로, 「반월」에서 달은 '밝은 빛'을 내어 '비취 보기 딱 알맞'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④ 「찬기파랑가」에서 '달'은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⑤ 「찬기파랑가」는 '달' 이외에도 '물, 젓나무 가지'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만, 「반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이라는 소재에만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2 기파랑의 인품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예찬하고 있으며, 7~8구에 서는 그러한 기파랑의 인품을 따르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기파랑이 부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와 대상이 함께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으며, 과거와 현재의 대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독백조로 전개되고 있다. ④ 유사한 구절의 반복은 보이지 않는다.
- 3 「찬기파랑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독백 형식이다.
 

**오답 해설** ① 「찬기파랑가」는 기파랑을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고, 「보기」는 화자 자신을 자연물(낙락장송)에 비유하고 있다. ③ 「찬기파랑가」에서 '젓나무 가지'는 '남'이 지닌 지조와 절개를, 「보기」에서 '낙락장송'은 화자가 지닌 기개와 절의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그 인물을 상징하는 자연물'의 관계가 성립한다. ④

「천기파랑가」의 ‘눈’은 시련, 유혹, 불의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보기>의 ‘백설’ 또한 불의, 부정한 세력 등을 의미한다. ⑤ <보기>의 ‘독야청청’에 담긴 태도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절개이며, 「천기파랑가」의 ‘눈이라도 덮지 못할’에 담긴 태도 역시 시련에 굴하지 않는 것이다.

**4** 9~10구에서 ‘жат나무 가지’는 고고한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비유한 것이고, ‘눈’은 그러한 지조와 절개를 위협하는 불의나 시련, 유혹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눈이라도 덮지 못’한다는 것은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가 너무나 고고해서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기파랑의 고고함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흐느끼며 바라보’는 것은 화자이므로, 화자는 현재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달이 없다(부재)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달’은 기파랑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이는 곧 화자가 기파랑의 부재를 겪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수풀’을 보고 ‘기량의 모습어울시’라고 여기는 것은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남이 지니시던 / 마음의 갖을 쫓고 있는’ 것은 화자이므로, 화자는 ‘남’이 보여 주었던 품격을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화자는 복비와 직녀의 다름 때문에 옥거울이 쫓겨져 반월이 되었다는 상상을 바탕으로, 반월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다. 화자는 반월의 모습을 비극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4구가 실제로 화자가 본 반월의 모습일 것이다. 화자는 하늘에 떠 있는 반월과 물속에 비친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상상하여 표현한 것이다. ②, ③ 밝고 둥글다는 유사성 때문에 둥근달을 옥거울에 비유한 것인데, 이는 달을 쫓게질 수 있는 것으로 본 화자의 상상과도 연결된다. ⑤ 화자는 직녀와 복비의 다름으로 옥거울인 둥근달이 둘로 쫓겨져서 반쪽은 직녀가 속한 하늘에 떠 있고, 나머지 반쪽은 복비가 속한 물에 잠겨 그림자가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02 사모곡 / 오관산 / 오륜가**

본문 060~06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위 덩더동성’이라는 여음구가 사용되고 있지만 주제의 강조와는 무관하다. 여음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 08 ‘당답’과 ‘해’ 같은 자연물이 등장하지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은 아니다.
- 10 어머니와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살아 계신 어머니를 부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13 고사 속 일들을 마치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인 듯 열거하고 있지만 점층적 열거로는 볼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 1 ㉠ 2 ㉠ 3 ㉠ 4 ㉠ 5 ㉠ 6 위 덩더동성 7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뒤 그 상황이 실현되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어머니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곧 어머니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 「오륜가」에서는 고사를 열거했다고 볼 수 있지만 「오관산」에는 열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세 작품의 주제는 모두 ‘효(孝)’와 관련된다. ② 「사모곡」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호미’와 ‘낮’에, 「오관산」에서는 ‘어머님의 죽음’을 ‘지해’에, 「오륜가」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하늘’과 ‘땅’에 비유하고 있다. ④ 「사모곡」과 「오륜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거나 통사 구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오관산」은 반복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 「오륜가」는 부모 모두에 대한 효를 노래하고 있지만, 「사모곡」은 아버지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오관산」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2** 내재적 관점은 형식적 요소인 언어, 표현법 등 작품 속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①은 작품 속에 사용된 표현법인 비유를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는 시대적 배경(가족 관계), ③과 ④는 독자와의 관계(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⑤는 작가의 삶(작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 것이므로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3** ㉠은 아버지를 ‘호미’에, 어머니를 ‘낮’에 비유한 후 그 차이에 주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보기> 역시 ‘구름’과 ‘바람’도 좋지만 ‘물’이 더 좋다고 하며 대상 간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오답 해설** ㉠과 <보기> 모두 열거와 나열(㉠), 매개체를 통한 마음 전달(㉡), 반복과 점층(㉢), 참신한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

**4** 연쇄적으로 말을 이어 가는 방식(연쇄법)도, 시적 상황에 대한 점층적 표현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젖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대밭에서 눈을 흘리니 ~ 고기가 튀어 올라’ 등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아아’라는 감탄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감탄, 칭송)를 표출하고 있다. ③ 맹종, 왕상, 증삼, 민자 등 효자들의 고사를 활용하여 ‘아버지에 대한 효’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고사 속 인물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눈앞의 광경처럼 제시한 다음 ‘~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라는 의문의 방식을 통해 그에 대한 칭송을 표현하고 있다.

**5** (B)의 ‘하늘 가이 업스랴다’는 부모의 덕이 끝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부모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 (B) 모두 부모에게 ‘값으려’ 하는 의미, 곧 효심을 노래하고 있지만, (A)는 경기체가이고, (B)는 시조이다. ② (A)와 (B)는 모두 낳고 기른 부모의 행위 덕분에 자신이 존재하므로 그 은혜를 값으려 하고 있다. 즉, 두 작품 모두 부모가 베푼 것이 ‘값으려’ 하는 행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③ (A)에서는 ‘큰 은혜’를, (B)에서는 ‘이 덕’을 ‘값으려’ 한다고 했다. ⑤ (A)에서는 ‘값으려’ 하는 행동, 즉 효의 구체적 사제가 고사 속 인물들의 효도 ‘광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03 구름이 무심탄 말 / 말 없는 청산이오 / 대천 바다 한가운에**

본문 066~071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간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금에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06 종장의 '분별없이 늪으리라'에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지만 설의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08 '말'과 '입자' 모두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② 3 ⑤ 4 ⑤ 5 ③ 6 ④ 7 화자 자신에 대한 말이 ⑥와 같이 허무맹랑하여 믿지 못할 말이나 입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1 「구름이 무심탄 말」에서는 '구름, (광명한) 날빛' 등의 자연물에 각각 '간신, 임금의 총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구름이 날빛을 덮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말 없는 청산이오」에서는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등의 자연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구름이 무심탄 말」에 '구름'(흐림)과 '광명'(밝음)의 명암 대비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말 없는 청산이오」에는 '청산'(물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에 색채가 드러나 있으나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말 없는 청산이오」는 '~ 없는 ~이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구름이 무심탄 말」은 동일한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④ 의문의 형식이 사용된 것은 「구름이 무심탄 말」의 종장에서이다. 「말 없는 청산이오」에는 의문의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구름이 무심탄 말」과 「말 없는 청산이오」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청산'과 '유수', '청풍'과 '명월' 등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나열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청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을 풍자하고 있지 않다. ③ 공간이 이동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태도 또한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④ 화자의 소망이 종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계절감을 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3 자신을 참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④ 화자는 '입'에게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을 믿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② '온 놈'이 '온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화자에 대해 모함하고 비방을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③ 초장과 중장에서 과장되고 허무맹랑한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에 대한 소문이 이와 같음을 밝히고 있다.

4 ㉠은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있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한편 ㉡은 '온 말'을 하는 사람들로, 화자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오답 해설 ① ㉠은 현재 화자의 모습으로 동경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은 화자를 모함하는 사람들로, 화자가 그들에 대해 연민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은 화자 자신으로,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은 화자를 모함하는 사람들로, 부정적 존재이다. ③ 속세를 떠나 물아일체의 달관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며, ㉡은 화자를 모함하는 세속의 존재이다. ④ ㉠은 화자 자신으로, 현재 화자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5 「대천 바다 한가운데」의 '사공'과 <보기>의 '개야미'는 중장에서 과장되고 허무맹랑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허황된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대천 바다 한가운데」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사람들로써 모함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② 「대천 바다 한가운데」와 <보기> 모두 극단적으로 과

장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해박성을 유발한다. ④ 「대천 바다 한가운데」와 <보기>의 '온 말'은 바닷속에서 바늘귀를 꿰어 건진다거나 개미가 호랑이를 들고 바다를 건넌다는 허황된 말이다. ⑤ 「대천 바다 한가운데」와 <보기>의 '입'은 모두 화자가 자신을 믿어 주기를 바라며 호소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6 ㉠(「구름」)가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는 것은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기 위해 임금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신돈이 임금을 보좌하여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는 ㉠가 '무심'하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허황하다'고 여기고 있다. 즉, 화자가 보기엔 ㉠은 욕심이 많은 존재이다. 따라서 <보기>를 통해 볼 때 ㉠은 신돈을 의미하며, 그가 떠 있는 '중천'은 권력의 핵심을 의미한다. ③ ㉠가 '입으로' 다닌다는 것은 그가 조정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횡포를 부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은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는데, <보기>로 볼 때 이는 임금의 올바른 판단, 즉 총명을 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마음이 어린 후이니 / 연 심어 실을 뽑아

본문 072~077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시간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는 잎 부는 바람'에서 계절적 배경이 늦가을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05 중장에서 자신이 만중운산에 있으므로 입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07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의 속성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화자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11 '사랑이 그쳐갈 제'라는 부정적 상황은 화자가 가정한 것으로, 화자가 현재 처한 현실이 아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③ 4 ④ 5 ② 6 오매불망(寤寐不忘) 7 ㉠은 부는 바람에 떨어지는 잎 소리를 듣고 입이 자신을 찾아온 것으로 착각한 일을 의미한다.

1 「연 심어 실을 뽑아」의 종장 '그칠 줄이 있으랴'에서 설의법을 활용하여 화자와 임의 사랑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마음이 어린 후이니」의 '지는 잎'에서 하강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연 심어 실을 뽑아」에는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마음이 어린 후이니」에서는 '만중운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인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연 심어 실을 뽑아」에는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마음이 어린 후이니」와 「연 심어 실을 뽑아」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④ 「마음이 어린 후이니」에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님'이 만중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 '만중운산'에 거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종장의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③ 초장에 제시된 '어리대(어리석다)'라는 판단은 '지는 잎 부는 바람'을 임으로 착각한 종장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 종장의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③는 화자가 이미 자신을 찾아온 기척으로 착각하는 소리이므로 화자에게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일시적으로 유발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반면 ⑥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잠을 깨워 화자의 바람을 방해하는 자연 현상이다. 따라서 임과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절망감을 심화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은 화자가 착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의 시련(임과 만나지 못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지만, ⑥가 임과의 추억을 환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초장을 고려할 때, ③은 화자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하는 일이 다 어리다’)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⑥ 때문에 <보기>의 화자가 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있지는 않다. ④ ③은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지만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⑥도 <보기>의 화자와 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⑤ ③과 ⑥ 모두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세월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4 임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실을 뽑아 노끈을 만들어 감아 매어 임과 마음으로 맺어지고자 하는 것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사랑이 그쳐갈 제’라고 이별을 가정하고 있을 뿐 실제 이별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며, 화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임을 생각하느라 잠 못 이루며 그리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③ 임과 헤어진 것이 아니므로 임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임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지 않다. ⑤ 현재 임이 부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임이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5 ‘사랑’을 ‘노끈’으로 감아 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랑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연’에서 실을 뽑는 것을 통해 이별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물을 바라보는 고정 관념에 대한 반성과는 관련이 없다. ④ ‘마음’이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임과의 재결합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사랑’이 끝났다가 다시 계속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발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랑에 대한 통념을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05 마음이 지척이면 / 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

본문 078~08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7 중장의 ‘마음이 천 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를 의미한다.

10 역설적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⑤ 4 ④ 5 ⑤ 6 심리적, 물리적 7 변형하기 어려운 대상인 ‘가슴’을,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이 변형이 가능한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 청자는 드러나지 않으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추상적 개념인 ‘마음’을 ‘천 리’나 ‘지척’과 같이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초장과 중장에서 대구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③ 중장의 견디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과, 중장의 임과 헤어진 상황을 비교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마음이 지척이면’은 중장의 ‘우리’라는 시어에서, ‘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는 중장의 ‘나’라는 시어에서 ‘인칭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고 있다.

2 화자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는 서로를 친밀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거리의 가까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는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친밀감이 반비례한다는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더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② 화자 때문에 발생한 부정적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가 자신이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 믿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화자는 가까이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관계를 부정적으로 여길 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도 아니다.

3 ‘각재(各在) 천 리’는 상대방과 화자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실제의 공간적 떨어짐에서 나오는 물리적 거리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필요한 공간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로의 심리적 거리감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공간적 거리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공간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마음이 지척’은 상대방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② ‘천 리라도 지척이오’는 물리적 거리가 매우 멀더라도 마음으로는 매우 가깝게 느낀다는 의미이므로,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통해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지척도 천 리’는 실제의 공간적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리감이 있다는 의미이다. ④ ‘우리’는 서로 ‘천 리’나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지척’으로 느껴지는 사이이다. 즉, ‘우리’는 물리적 거리감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멀게 느껴지지 않는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있다.

4 ‘마음이 지척이면’과 <보기> 모두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즉 부재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마음이 지척이면’에서는 <보기>와 달리 상대방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이화(梨花: 배꽃)’가 흠날리는 봄에서 ‘낙엽(落葉)’이 지는 가을까지 시간의 경과가 드러난다. 하지만 ‘마음이 지척이면’에는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보기>에서는 ‘흠뻑릴 제’와 ‘추풍낙엽(秋風落葉)’에서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지만 ‘마음이 지척이면’에는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마음이 지척이면’에서는 ‘지척’과 ‘천 리’라는 표현을 통해 ‘마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마음이 지척이면’과 <보기> 모두 ‘천 리’라는 표현에서 수치를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5 중장의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는 ‘그것은 아무쪼록 견딜 수 있다.’라는 의미이다. 만약 화자가 쇠락해 가는 국가의 충신이라면 어떤 고된 시련이 오더라도 참을 수 있지만, 국가가 없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만약 화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앓은 상황이라면, ‘임’은 화자가 사랑하는 ‘어머니’로 이해할 수 있다. ②, ③ 만약 화자가 사랑에 빠진 상황이라면, 화자는 어떠한 극단적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지만, 임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임과 헤어질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만약 화자가 쇠락해 가는 국가의 충신이라면,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상황에 등장한 ‘두 눈’은 국가에 대한 화자의 충성심을 보여 주기 위해 설정된 인물로 볼 수 있다.

06 단가육장

본문 084~08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어즈버', '두어라'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을 뿐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05 색채가 대비되고 있지 않다.
- 07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고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② 4 ③ 5 ② 6 제비 7 '우로'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1 '명월', '매화' 등 관습적,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을 통해 유배지에서 외롭게 지내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④ <제2장>을 과거의 기억 환기와 연관 지을 수도 있으나, 현실 극복 의지나 자연과의 교감, 화자의 자기반성은 이 글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② 화자가 '명월'을 반가워하고 '매화'를 보려 하는 것을 자연 교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의 자연물은 벗어나 화자를 상징할 뿐이다. ③ <제6장>을 통해 임금을 그리움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원망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2 ㉠은 '널로만 하노라'와 연결되어 제비가 ㉠의 시간 동안 사철을 풀어내는 것보다 자신의 시름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은 멀리 유배 온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간 데마다 따라오'는 '명월'에 대한 신의를 강화한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화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화자와 '인간'과의 심리적 거리감은 ㉡에만 드러난다. ④ ㉠은 내면의 시름을 풀어내는 시간이며, ㉡은 화자가 있는 유배지와 '인간' 간의 거리이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⑤ ㉠과 ㉡ 모두 미래에 대한 화자의 전망과는 관련이 없다.
- 3 '우로'는 남산에 있다 사라진 '술'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남산에 땀든 술이 사라진 까닭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렐시교'와 연관 지어 보면, 술이 도끼에 베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술을 다시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로'는 '술'을 남산에 있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작가를 유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우로'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③ '명월'은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따라온 존재로, 진정한 벗을 의미한다. ④, ⑤ '매화'는 눈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존재로, 힘겨운 유배 생활 중에도 충절을 잃지 않는 화자를 의미한다.
- 4 <보기>의 ㉡는 소리에 들썩이는 반면 화자는 홀로 있으므로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 글의 <제3장>에서 유배 중인 화자는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보고 한숨 겨워하고 있으므로 화자와 대상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벌'이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보기>의 '벌'이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화자의 처지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가 '벌'을 벗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⑤ <보기>의 '벌'이 화자 자신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와 대비를 이루는 대상이다.

- 5 <제5장>의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외로운 화자를 위로해 주는 '명월'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제4장>에서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③ <제6장>에서는 점층적인 전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현재 유배 중인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6장>의 '실월(雪月)', '매화'에서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나타나지 않는다.

07 우활가

본문 090~096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6 화자의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어리석고 미친 말'은 화자가 타인을 향해 하는 말로, 남의 미움을 받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르는 화자의 성격을 보여 준다.
- 10 화자는 사시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도, 추위도 잊은 자신을 우활하다고 탄식한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⑤ 3 ③ 4 ⑤ 5 ④ 6 교언영색(巧言令色) 7 애진경형과 충군 제정의 유교적 이념을 실천해 온 화자와 달리, 말썬이나 미모를 지닌 자들이 출세하는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1 '한 칸 초가집이 비 새는 줄 알았던가' 등에서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우활함을 부각하며 탄식할 뿐, 특정 대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어찌V생긴 몸이V이토록V우활한가'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이 반복되고 있다. ②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에서 공자의 고사를 통해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학문적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태산'은 공자의 학문적 경지를 나타낸 말이다. ③ '우활도(우활할사) 우활할사 그토록 우활할사'가 반복되어 화자의 우활함을 탄식하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봐 뱃님네야', '아 이야'와 같이 청자를 향해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한탄, 체념, 소망 등을 드러내고 있다.
- 2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남에게 미움받을 줄 모르고 어리석고 미친 말을 했던 화자의 우활함을 탄식한 것이다. 화자가 남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고 미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 현순백결(懸鵲百結)이 부끄러운 어이 알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축타의 말썬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 송조의 미모를 얹은 낮에 잘할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애진경형 충군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 내 분수로 여겼더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봄 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 겨울 눈에 시흥(詩興) 거워 추움을 어이 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을 우월하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이는 청빈과 안빈낙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대부의 모습을 언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대부의 이상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의 우월로 인해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우월도 우월할사 그토록 우월할사'를 반복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자책하고 있다. ②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애친경형'과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충군제장'은 유교의 기본 덕목으로, 화자가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드러낸다. ④ 화자는 자신의 우월을 '하늘이 준 우월'로 생각하며 체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삶의 방식인 우월함을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것을 탄식의 어조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가 동경하는 '태고'는 요순과 공자, 주공의 시대로, 이를 통해 현실이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4** '평생의 모든 일이 우월 아닌 일 없도다 / 이 우월 거느리고 백년을 어이하리'를 통해 화자는 평생을 우월하게 살아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자신의 우월함을 천성으로 인식하며 수용하는 지점('하늘이 준 우월을 내 실마 어이하리')은 ⑥이다. ② 화자는 ⑥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탄식하면서 체념하며 천성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⑥에서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라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토로하고 있으나, 자신의 우월함을 이해해 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화자는 ③에서 ⑥에 이르기까지 우월하게 살아왔음을 토로할 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다.

**5** '이제 배워 어이하며'는 축타의 말씀씨를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으로 출세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이내 젊었을 때 우월함이 그지없어'와 관련해 볼 때 화자가 ③의 원인을 자신의 우월함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② ③은 우월이 타고난 천성이므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체념적 수용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③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 보면 ~ 요순 일월(日月)을 잠시나마 쬐 것'을 통해, ⑥에서 화자가 '옛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에 살고 싶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평생의 모든 일이 우월 아닌 일 없도다'를 통해 화자가 평생 우월하게 살 것임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⑥은 여성도 자신의 우월함으로 인해 소망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8** **봉산곡**

본문 097~10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1**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에서 은거지를 떠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나, 자연에 대한 묘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

**06** 화자가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부분은 있으나,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10**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⑤ **4** ⑤ **5** ① **6**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7** 화자는 '악비'나 '조적'과 같이 단호한 태도를 보인 인물을 언급함으로써 이들과 다른 단호한 의지로 왕명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1**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며 지내다가 임금의 명을 받고 청나라로 가게 되는 것은 맞지만, 임금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대구법, 영탄법, 의인법 등을 통해 화자 주변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옥주봉', '경천대' 등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을 통해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 밝히고 있다. ③ 병자호란 때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역사적 사건이 드러나고 있으며, '굴욕이 이러한데' 등으로 미루어 청나라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오나라 궁궐에 섬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 매다니'에서 고사를 인용하여 청나라에 대한 화자의 반감과 굴욕을 씻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화자는 '악비', '조적'과 같은 인물을 떠올리며 이들과 다른 의지를 다지려고 할 뿐, 자신의 처지를 이들과 비교하여 낮다고 여기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노련의 분노'로 인해 자연에 은거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곳의 경치를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예찬하고 있다. ②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어와, 경천대야, 네 이름이 과연 험한 것 아니로다' 등과 같이 말을 건네며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왕명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⑦으로 굴욕을 씻을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은 화자의 근심과 시름을 펼쳐 내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반면 ③은 화자의 만류에도 임이 건너지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근심과 시름을 갖게 하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⑦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와는 관련이 없으며, ③은 임의 죽음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좌절감과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② ⑦으로 굴욕을 씻어낸다는 점에서 ⑦에는 치욕을 청산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③은 임이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너지다 죽음을 맞이한 곳이므로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결심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⑦은 화자가 떠난 곳이나 그리움과는 관련이 없는 소재이며, ③은 임을 죽게 만든 원인이므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⑦은 굴욕을 씻어 내므로 만족감을 줄 수 있으나, ③은 화자와 임의 이별의 원인이 되므로 심리적 위안을 주는 소재로는 볼 수 없다.

**4** '동서남북 만리 밖'은 화자가 왕명을 좇아 다니고자 다짐한 곳으로, 이는 왕명을 따라 떠나게 된 청나라를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요양 만릿길'은 화자가 왕명을 받아 청나라로 떠나는 먼 길을 의미한다. ② '초가 몇 칸'은 작가가 손수 지은 집으로, 상주에서 은거할 때 지낸 곳이자 소박한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③ '삼 년 입은 옷가지'로 이물과 요를 겪었다는 것은 행장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길을 떠났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④ '타국 풍상'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이 겪은 고통을 의미한다.

**5** [A]에는 절벽, 모래밭 등 화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경치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만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으며, [B]에는 '왕명 좇아 다니리라' 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졌 임무를 반드시 이행하고자 하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② [A]에는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과 만족이 드러날 뿐, 근심은 드러나지 않는다. [B]에는 청나라에 굴욕을 당한 조선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경물에 대한 예찬을 보이고 있을 뿐, 아쉬움

은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B]에서는 세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결연한 자세는 [B]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박한 삶의 자세는 [A]에서 찾을 수 있다. ⑤ [A]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자연과 달리 떠나가야 하는 화자의 처지가 대비적으로 그려져 있다. 한편 [B]에서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09 농가월령가

본문 104~110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4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자연물은 찾을 수 없으며 탈속적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 10 성실하고 정직하게 농사를 지어도 재앙이 없지는 않다(‘수한 풍박 잡시 재앙 없어야 하라마는’)고 하였다.
- 11 ‘하소정(夏小正), 빈풍시(漣風詩)’라는 권위 있는 고전의 제목을 들어 농사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③ 3 ① 4 ④ 5 ③ 6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을 전심하소  
7 [A]에는 상풍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상업이 커지기 시작한 당시 사회상이 나타나 있는데, 화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1 ‘설중(雪中)의 봉만(峯巒)들은 해 저문 빛이로다’에서 눈 덮인 산 봉우리라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공간이 대조되고 있지는 않으며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지도 않다. ④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세상에 거리를 두려는 태도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 2 장사는 농업에 비해 ‘혼전하’지만(넉넉하지만) 농업은 ‘아무리 살 년에도 아사를 면’한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종년 근고한다 하나 그중에 낙이 있네’로 보아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국가의 지원이 없는지는 알 수 없으며 매년 소출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살년’일 때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간신히 먹고살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칠문은 풍년이요 삼문은 흉년이라’로 보아 흉년일 때보다 풍년일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3 이 글은 ‘주준에 술 들이니 돌 틈에 새암 소리 / 앞뒷집 타병성은 예도 나고 제도 나네’에서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또한 <보기>는 <제4수>의 ‘긴 휘파람 흘러 불 제’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은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 또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파라호 빛꾸러기 살던 곳 터도 없다’에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보기>의 <제2수>에 생성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과 <보기>의 <제3수> 모두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사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과 <보기>의 <제4수> 모두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4 ⑤는 절기도 오고 가고 농사도 풍년과 흉년이 있다는 뜻이다. 절기에 따른 농사 일정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소한과 대한이라는 ‘십이월’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다. ② ‘묵은세배’는 ‘설날그믐날 저녁에 그해를 보내는 인사로 웃어른에게 하는 절’이므로 어른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장유유서’와 연결 지을 수 있다. ③ ‘토지’에서 나는 ‘소출’로 ‘돈 지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토지’를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생활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이다. ⑤ 양반이 농민들에게 농사일을 권하고자 하는 뜻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5 ‘일편으로 다듬으며 일편으로 지어 내니’에서 ③를 만들기 위해 바쁜 여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고초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⑥를 만드는 여인들의 고초를 부각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③는 세전에 세시 의복을 장만하는 12월의 세시 풍속과 관련이 있으며, ⑥는 설날그믐에 떡, 술, 만두 등 여러 음식을 만들어 즐기는 세시 풍속과 관련되어 있다. ② ⑤는 ‘상자에도 가득하고 햇대에도 겹엿’을 정도로 많은 옷을 통해, ⑥는 ‘떡쌀은 몇 말이며 술쌀은 몇 말인고’와 ‘납땀 날 창애 묻어 잡은 쟁 몇 마리 인고’ 등을 통해 풍성하고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③는 여러 색깔의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것에서, ⑥는 여러 가지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③는 ‘자주 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매 옥색’ 등을 통해 시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⑥는 시각적 심상과 함께 ‘돌 틈에 새암 소리’, ‘앞뒷집 타병성’을 통해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 10 시집살이 노래

본문 111~116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두 여성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04 화자는 고된 시집살이를 한탄하면서도 해학적 태도로 풀어내고 있다.
- 09 수미상관의 방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② 4 ⑤ 5 ③ 6 시집살이 개집살이 7 (1)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 쌍쌍이 떠올어오네 (2) ‘거위’, ‘오리’는 화자의 어린 자식들을 비유한 것으로, 그들이 화자의 품으로 파고드는 모습을 통해,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해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1 사촌 동생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집안일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②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은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사촌 동생과 형님 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고달픈 시집살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시간의 흐름과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자연물을 활용하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 않다.

3 ‘수박 식기’와 ‘도리소반’은 모두 고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소재로, 집안일에 서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당초’, ‘고추’와 비교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오 리’와 ‘십 리’를 통해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대하기 힘든 존재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호랑새’와 ‘꾸중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배꽃’은 결혼하기 이전 화자의 모습, ‘호박꽃’은 현재 화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대비를 통해 초라해진 현재 화자의 모습에 대해 탄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태도는 맞지만, 화자가 아닌 자식들을 ‘거위’와 ‘오리’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조 화자인 사촌 동생이 중심 화자인 사촌 형님에게 시집살이가 어떠한지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② ‘오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술’, ‘열두 방’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열거하여 가사 노동의 강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릴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열거를 통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5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뜻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으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술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 및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의 규칙적 사용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모두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임금의 계시는 대궐을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에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1 우부가

본문 117~123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화자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공생원, 평생원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다.

06 전체적으로 화자는 인물(공생원, 평생원)에 대해 비판과 풍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④ 3 ④ 4 ④ 5 ① 6 거들어서 한 말 지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7 ‘우부(愚夫)’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조선 후기의 양반층을 가리키는데, 이 글의 공생원과 평생원이 우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부가’라는 제목은 어리석은 양반들의 타락상을 비판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1 화자는 공생원, 평생원의 행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행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화자 자신의 직접적 경험을 형상화하여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가사로, 3(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작자 미상의 가사로, 사용된 언어 표현으로 볼 때 양반보다는 평민이 작자일 것으로 짐작되며, 전반적인 언어 구사 면에서 조선 후기 민중의 현실적이고 생생한 언어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④ 공생원과 평생원의 부정적 행실을 비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윤리 등을 경계하여 깨우치게 하고 있다. ⑤ ‘~(하)고’, ‘~(하)기’ 등의 통사 구조와 ‘~로다’ 등과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물의 부정적인 언행을 부각하고 있다.

2 ‘아낙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는 공생원의 부정적인 행실로 인해 고생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공생원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저 건너 공생원’과 ‘산 너머 평생원’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판하는 대상으로, 추하고 탐욕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② ‘주제넘게 아는 체로’와 ‘부끄럼을 모르고서’는 각각 공생원과 평생원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③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은 공생원에 대한 주위의 평판에 해당한다. ⑤ 노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정을 주는 평생원의 부정적 행적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3 ‘제 아버의 덕분으로 / 돈천이나 가졌더니 술 한잔 밥 한술을 / 친구 대접 하였던가’를 통해, ㉠이 부모 덕에 돈은 있지만 매우 인색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에서 알 수 있다. ② ‘뜯채를 경영하고 경향(京鄕) 없이 쏘다니며 / 재상가에 청(請)질하다 봉변하고 물러서고’에서 알 수 있다. ③ ‘대종손(大宗孫) 양반 지랑 산소나 팔아 볼까’에서 알 수 있다. ⑤ ‘훈인 핍계 어린 딸은 백 냥짜리 되었구나’에서 알 수 있다.

4 이 글의 공생원과 평생원은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기>의 ‘부인’을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으로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어른과 부모 등을 섬겨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이 글과 <보기> 모두에서 드러난다. ② 이 글은 공생원과 평생원의 <보기>는 ‘부인’의 부정적 면모를 열거하고 있다. ③,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의 행실을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5 ㉢의 ‘이소능장(以少凌長)’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으로, 권력자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는 자신이 때려 놓고 도리어 맞았다고 우기는 것으로, 적반하장(積反下將)의 태도라 할 수 있다. ③ ㉢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④ ㉢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정표를 주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 ㉢는 술집과 투전방을 집의 안방이나 사랑방처럼 들락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해당한다.

## 12 제비가

본문 124~129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04 날아가 버린 제비에게 ‘네 어디로 달아나노’, ‘내 집으로 훨훨 다녀오너라’ 등과 같이 말을 건넨다고 볼 수 있으나 제비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8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② 4 ⑤ 5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노 6 ‘우루루루룩’, ‘숙궁’, ‘훨훨’ 등은 새의 울음소리나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 낙엽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동풍’은 부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떠나는 이 도령을 의미한다.

- 1 「춘향가」, 「흥부가」, 「새타령」의 가사 중 일부분이 모여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의 구체적인 공간의 이동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5행에서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를 반복하여 제비를 잡으러 나가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제비뿐만 아니라 18~20행에서 공작, 앵무새, 소쩍새 등 다양한 새들을 나열하여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춘향가」, 「흥부가」, 「새타령」이 혼재되어 작품 전체 사상의 일관성은 다소 떨어진다. ⑤ ‘-나’와 같은 평서형 어미와 ‘-노’, ‘-냐’와 같은 의문형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2 ⑥의 앞에서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라고 했으므로, 울창한 숲속의 새들이 짝을 이루어 날아다니는 데 반해 인물(춘향)에게는 자신을 찾아올 대상(이 도령)이 없다는 데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춘향이 부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떠나는 이 도령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② ‘복희씨’가 만들었다는 그물을 가지고 제비를 잡으러 나간다는 것은, 좋은 도구를 활용하면 제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제비가 구름을 박차고 공중에 높이 떠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④ 아심한 시각에 자신을 찾아올 이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인물(춘향)의 외롭고 쓸쓸한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3 (가)는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를 통해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A]에서는 풍류의 자세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가)는 (나)에서 설명한 ‘기존의 시조’이며, [A]는 (나)에서 설명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조선 후기의 시가 갈래’에 속한다. ③ [A]에는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가)에서는 ‘역군운(亦君恩)이 샷다’를 통해 화자가 임금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말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잡가는 ‘기존 시가의 4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가)의 4음보 율격이 [A]에서는 ‘어이고V저 제비V네 어디로V달아나노’와 같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잡가의 특징으로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한자 생어를 사용하는 등 상류 문학의 흐름을 계승’했다고 하였으므로, ‘복희씨(伏羲氏)’나 ‘망탕산’ 등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상류 문학의 흐름을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제비처럼 날쌔 사람이라는 뜻의 ‘연인’이 장비의 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화자가 망탕산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장비라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제비를 꼭 잡고야 말겠다는 호탕하고 호기로운 태도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③ 망탕산은 제비를 떠올리기 위해 차용한 소재일 뿐, 화자가 직접 망탕산으로 찾아가거나 그곳에 도착한 것은 아니다. ④ 제비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화자의 걱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3 기녀반 / 앞 못에 든 고기들아 / 발매는 소리

본문 130~135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결혼 생활의 면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며, 남편에 대한 원망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 03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을 뿐, 친구와의 재회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 04 화자의 정서와 조용하는 풍경이 그려지고 있다.
- 12 건강한 노동의 가치를 부각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내용은 없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① 3 ② 4 ⑤ 5 ⑤ 6 북해 청소 7 「기녀반」의 화자나 「앞 못에 든 고기들아」의 ‘고기’가 처한 상황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강제된 것, 억압적 현실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 1 「기녀반」의 내용 중 ‘타고난 재능을 펼치지 못한 한’으로 추리할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기녀반」의 화자는 초가집에서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며 혼자 늙어 가는 처지라고 하였다. 이는 집안에 갇혀 남편만 바라봐야 하는 현실에서,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홀로 쓸쓸히 늙게 됨을 표현한 것이다. ③ 「앞 못에 든 고기들아」의 화자인 궁녀는 궁에만 갇혀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④ 「발매는 소리」의 화자가 고되게 밭을 매는 모습에서,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고된 농사일에까지도 동원되어야 했던 가난한 서민 여성의 현실이 드러난다. ⑤ 「발매는 소리」의 화자가 결혼 후에는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서 기존 여성의 행동과 자유를 규제하는 억압적 현실이 드러난다.
- 2 ‘날마다 큰 강물을 바라만 본’다는 것은 그리움과 시름이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홀로 외롭게 늙어 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뿐, 큰 뜻을 품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거울에 새겨진 ‘난새’가 혼자서 늙어 간다는 것은 외롭게 늙어 가는 화자의 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늙어 가는 ‘난새’를 방 안의 풍경으로, 활력을 잃은 ‘나비’를 방 밖의 풍경으로 해석할 경우, 화자의 쓸쓸한 심회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쓸쓸한 모래밭’과 ‘저녁 비’는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면서 애상적 정서를 자극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⑤ ‘기러기’나 ‘조각배’는 어딘가로 돌아오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단 창문 닫긴’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임(남편)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든다(들었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북해 청소'의 바다에서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찾을 수 없다. ③ 종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지 청자의 반응을 촉구한 것이 아니다. ④ '고기'는 화자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 대상으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고기'를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지만, '고기'와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떡물'은 '땅'에 내린 어둠을 비유한 표현이고, '별'은 밤이 된 '하늘'에 떠 있는 대상이다. '땅'과 '떡물', '하늘'과 '별'의 관계를 동일한 것으로 묶을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으며, 여기에서 유추한 내용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품게 되는 희망'의 의미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더운 날'에 '힘찬 발'을 매야 하는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노동 조건의 열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삼세 골로 매고'에서 점층적 반복을 통해 고된 노동의 강도를 부각하고 있다. ③ 3~4행에서 '땅'의 풍경과 '하늘'의 풍경을 대구를 활용하여 묘사하면서 시간의 경과(어느덧 밤이 되었음)를 표현하고 있다. ④ 험 없는 노동 속에 '불같이도 더운 날'이 밤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통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장시간의 노동을 추리할 수 있다.

**5** ㉠에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과 ㉡을 각각 조변석개의 현실이나 당량거절의 태도를 그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에는 불행한 처지에 대한 한탄, ㉡에는 궁에 갇혀 지내야 하는 처지에 대한 한탄, ㉢에는 어머니의 주검마저 볼 수 없는 처지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 ② ㉠에서는 현재의 불행한 처지로 인해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각할 수 없다며 자신의 불행을 하소연하고 있다. ③ ㉡에서는 '너'(고기)와 '나'(화자)의 비교를 통해 자유롭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에서는 무심한 상두꾼의 행동을 언급하여 어머니의 주검조차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는 화자의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PART 3 | 현대시

### 01 초혼

본문 138~14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04**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에서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와 대비되는 생성의 이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07** 화자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죽은 임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은 보이지 않는다.

**10** 화자는 임의 죽음에 슬퍼하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만, 임의 죽음에 자책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③ 3 ② 4 ④ 5 ⑤ 6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7 화자는 사랑하는 임의 죽음으로 인해 극한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화자는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응축하여, 망부석 설화 속에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돌'을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1** 임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을 절제하지 않고, 절규하듯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와 같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③ 슬피 우는 '사슴의 무리'에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산산이▽부서진▽이름이여'와 같이 3음보의 전통적 율격을 바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돌'은 망부석 설화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화자의 그리움과 한이라는 정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소재이다.

**2** 죽은 임과 살아 있는 화자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건널 수 없는 거리 때문에 화자는 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자기 성찰이나 반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자연 친화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④ 죽은 임과의 이별의 정서가 드러나지만 이를 반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⑤ 삶을 즐기거나 하는 긍정적인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화자가 매개체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아니라 <보기>이다. <보기>에서 화자는 유리를 통해 대상(죽은 아이)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이 글의 화자는 대상(사랑하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대상을 '별', '산새' 등의 자연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이 글은 대상을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리'는 저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보기>는 '새까만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등에서 영탄법을 사용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보기>는 10행의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에서 영탄법을 사용하여 아이를 잃은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기>는 자식의 죽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를 통해 고립과 단절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에서는 유리를 통해 창 안과 창밖의 세계가 단절되는 동시에 연결되고 있다.

4 화자가 설움에 겹도록 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허탈감, 절망감으로 절규하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임에 대해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화자가 고복 의식을 행하여 임 대신 희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는 심중에 남아 있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그 말을 하기 위해 초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③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는 것은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한 표현이다. 화자가 사슴의 무리가 우는 것을 보고 죽은 입을 떠올린 것이 아니다. ⑤ ‘돌’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한의 응결체이다. 화자가 돌처럼 굳은 각오를 다지며 죽은 입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5 ㉠에서 화자는 죽은 임이 있는 ‘하늘’과 자신이 있는 ‘땅’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 절망감을 느낄 뿐, 임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름의 주인이 없다는 것은 대상의 부재를 의미한다. 화자는 죽음으로 인해 대상인 임이 부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걱정적 어조로 절규하고 있다. ②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③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리는 때는 낮과 밤의 경계가 되는 시간으로, 해가 지는 것은 소멸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④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는 고립과 단절의 공간으로, 임이 있는 하늘과 화자가 있는 땅 사이의 경계에 있는 공간이다.

02 이별가

본문 144~149쪽

기본 실력 다지기

04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1 ‘저편 강기슭’과 ‘뱃머리’로 볼 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상징하는 것은 ‘강’임을 알 수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④ 4 ② 5 ⑤ 6 ㉠: 이승, ㉡: 저승, ㉢: 바람 7 ‘동아 밧줄’은 화자와 대상의 이승에서의 인연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해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1 인연이 다함을 ‘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 내리는데’로, 생사를 초월한 인연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으로, 대상의 죽음을 ‘니 흰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와 같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애상적 분위기는 느낄 수 있지만, 시적 공간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뒹락카노’, ‘바람에 불려서(날려서)’ 등 동일한 시구가 전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⑤ 감정 이입과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 ‘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 내리는데’를 통해 화자는 대상과 맺은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대상과의 인연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오냐, 오냐, 오냐 / 이승 아니든 저승에서라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오냐, 오냐, 오냐, /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④ ‘오냐, 오냐, 오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씩어서 동아 밧줄은 삭아 내리는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바람’의 의미 변화를 통해 화자와 대상의 인연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뒹락카노’는 되묻는 의미의 경성도 방언으로, 상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② ‘씩어서’ ‘삭아 내리는데’는 소멸의 이미지로, 대상과 맺은 ‘동아 밧줄’과 같은 인연이 다했음을 의미한다. ③ ‘뒹락카노’를 반복하여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과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다. ⑤ ‘오냐’는 긍정의 대답으로 대상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승 아니든 저승에서라도’ 대상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이 글은 ‘저편 강기슭’에서 말을 건네는 대상의 말을 듣기 위해 ‘뒹락카노’라고 되묻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보기>는 ‘어디로 갔나’라며 ‘이 사람’을 찾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대상과의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대립적 공간을 통해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는 대립되는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바람에 날려서’, <보기>는 ‘없다고’와 같이 연결형 어미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글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지만, <보기>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5 ㉠은 갈밭을 건너 ‘이승 아니든 저승에서라도’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소재이고, ㉡은 화자의 슬픔과 눈물이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의미는 ‘단절’에서 ‘연결’로 변화했다. ㉡은 ‘슬픔’을 환기한다. ② ㉠과 ㉡ 모두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라 볼 수 없다. ③ ㉡은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지만, ㉠은 화자의 슬픔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라 볼 수 없다. ④ ㉠은 상충적 이미지보다는 유동적, 초월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03 노정기

본문 150~155쪽

기본 실력 다지기

05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09 ‘시궁치’는 썩은 도랑으로, 시궁치가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상징한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① 3 ③ 4 ⑤ 5 ④ 6 ④ 7 ‘흐릿한 밤’과 같은 절망적 현실 속에서 떠다니다 밑물에 휩쓸려 온 힘없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 ‘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기생하며 살아온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1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소금’, ‘조수’, ‘흐릿한 밤’ 등의 상징적 소재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②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과,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라는 대립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③ ‘울렀다’, ‘없었다’ 등의 과거 시제와,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 '오래 묵은 포범처럼' 등의 비유를 활용하여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포범처럼 달아 패었다'의 원관념은 '삶의 티끌'로, 위태롭고 불안하게 살아온 삶에서 남은 보잘것없는 결과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는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남십자성'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비추는 지표이자 희망으로 볼 수 있다. ④ '흐릿한 밤'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의미한다. ⑤ '거미'는 거대한 바다의 '새벽 밀물'에 밀려온 나약한 대상으로, 외적 상황에 휩쓸려 살아온 화자를 가리킨다.

**3** 이 글은 '울랐다', '앉았다' 등의 과거 시제를 통해 화자의 삶을 회상하고 있으나, <보기>는 '가련다', '간다' 등의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의 젊은 날을, <보기>의 화자는 현재 자신의 젊은 날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이 글은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와 같아'를 통해 화자의 불안함을, <보기>는 '인개같이 물 어린 눈'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은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을 통해, <보기>는 '눈물로 야 보낼 거냐'를 통해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배'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유랑하는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4** ㉠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 <보기>에서 화자가 앞으로 정착하게 될 곳(목적지)인 '언덕'과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아늑한 이 항구'는 평화롭고 정돈 고향을 의미한다. ② '뒷부리'는 화자가 떠나는 조국을 의미한다. ③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동포)을 의미한다. ④ '바람'은 화자의 미련과 망설임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5** '시궁치'는 화자를 구속하는 절망적 현실로, 벗어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상징한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자신을 바다의 물결에 떠다니는 '배'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깨어진 배 조각', '꿈'을 '밀항하는 쟁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배'와 같은 자신이 만난 시련을 '암초', '태풍'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그리운 지평선'은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안식의 공간을 상징한다. ⑤ '삭아 빠진 소라 껍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상황에 휩쓸려 기생하며 살아온 비극적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낸다.

**6** '전설에 읽어 본 산호초'는 화자가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한 것이므로, 작가가 지향한 조국 독립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깨어진 배 조각'은 화자의 목숨을 비유한 것으로, 작가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위태로움을 가리킨다. ② '서해를 밀항하는 쟁크'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작가의 젊은 시절을 밀항자와 같은 불안한 처지로 표현한 것이다. ③ '흐릿한 밤', '시궁치'는 부정적인 현실을 가리키므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민족 현실로 볼 수 있다. ⑤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은 바다의 물결에 따라 흘러간 화자의 인생으로, 독립 투쟁을 위해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삶을 산 작가의 인생으로 볼 수 있다.

**04 질투는 나의 힘**

본문 156~161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대립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07**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과거(시를 쓰고 있는 현재)를 회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젊은 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13~14행에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게 7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젊은 날에 대해 깊고 넓게 조망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다.

**1** '-구나'를 반복하여 미래의 화자가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반어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돌아다녔으나 실상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이론 것이 없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신중한 성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는 미래를 가정하여 현재를 돌아보고 있으며, 나이 든 화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젊은 날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우며 무언가를 이루어 내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③ 화자는 젊은 날 자신의 삶에 대해 '어리석게도'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화자는 타인의 사랑을 얻으려 미친 듯이 헤매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젊은 날을 반성하고 있다.

**3** <보기>의 화자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반성적, 자기 성찰적 태도는 '이다지도 욱될까', '참회의 글', '부끄러운 고백' 등의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화자 또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와 이 글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풍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보기>와 이 글 모두 앞부분에서는 풍경을, 뒷부분에서는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와 이 글 모두 계절적 배경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애상적 분위기도 아니다. ⑤ <보기>에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이 글에는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으나, 아들이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화자는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등의 표현을 통해 젊은 날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 다른 사람이나 자연과의 공생(㉢, ㉤), 구체적 체현(㉣)은 드러나 있지 않다.

**5** 화자가 지나온 삶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가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종이', '짧은 글'은 화자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을 담은 기록임을 보여 준다. ② '나'라는 화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내 마음', '나의 생' 등과 같이 화자 자신에 대한 내적 성찰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③ 화자가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라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부끄러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머뭇거렸구나', '질투뿐이었구나' 등의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여 미래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05 우리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본문 162~16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작품 표면에 직접 드러난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독백적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 10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 13 ‘알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는 고향에 가고 싶은 꿈이 이룰 수 없는 소망임을 드러낸 표현이다. 화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② 4 ② 5 ③ 6 뭇비둘기 7 ‘등대’는 배가 항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미 없는 존재인데, 현재는 배가 항해할 수 없기에 의미가 없다. 화자는 이러한 ‘등대’를 고향에 갈 수 없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 1 이 글에 설의적 표현이나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밤이 / 알곳은 손을 하도 꼭게 흔들길래’는 추상적 대상인 ‘밤’이 손을 흔들다(의인법) 구체화한 것이다. ② ‘날고 싶어 날고 싶어’를 반복함으로써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③ ‘가도 오도 못할 우리지오’로 사상을 마무리하여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그리움을 강조하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삽살개 짚는 소리 / 눈보라에 얼어붙은 설달 그름 / 밤’에서 청각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2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아롱범’은 화자의 당당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③ ‘우리지오의 이야기 कै고 싶던’은 유년 시절 동경의 공간이었던 ‘우리지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④ ‘그 모두’는 유년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이를 ‘살뜰히 담’은 것은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모습을 뜻한다. ⑤ 바다의 ‘얼음이 두껍’기 때문에 화자는 고향에 갈 수 없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3 이 글의 화자가 어떤 일에 대해 자책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화자는 2연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의 화자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 자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가도 오도 못할 우리지오’, 즉 타향에 있고, <보기>의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 있다. ③, ④ 이 글의 화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안타까워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 역시 그리던 고향이 아닌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에 심리적으로 안주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 글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현재 화자의 상황과,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었던 과거의 상황을 대비하여 현재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보기>는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고향을 대비하고 있다.
- 4 ‘-고나’는 영탄의 의미를 지니는 어미이나 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에 빠져드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은 냉혹한 현실에 맞서 온 자신의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술을 마시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우리지오 가까운 부두에 이르렀다. ③ ‘-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고향에서의 유년 시절의 추억을 적극적으로 떠올리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날고 싶어’를 반복하여 ‘뭇비둘기’처럼 하늘을 날아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자연물인 ‘밤’이 화자의 꿈을 꾀인 것이 아니라 화자가 스스로 고향에 가고 싶은 꿈을 꾸는 것이므로 ㉠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화자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5 ㉠은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어 우리지오 가까운 항구로 가게 된 시간으로, 화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시간이다. ㉡는 과거 화자가 동경했던 공간인 우리지오의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듣고 싶어 하던 시간으로, 화자의 기대가 높았던 시간이다.

오답 해설 ① ㉠에 자연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에서도 정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은 현재의 시간이지만, 화자가 과거를 성찰하고 있지는 않다. ㉡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과거의 시간으로,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하는 시간이 아니다. ④ 화자는 현재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을 심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추억 속의 시간으로 화자의 심적 갈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에서 화자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므로 ㉡에서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는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시간으로 ㉡에서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06 흑백 사진 - 7월

본문 168~17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현재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고 있지는 않다.
- 08 ‘파란’이라는 색채어가 드러나지만 이와 대조되는 색채어는 찾아볼 수 없다.
- 13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드러나지만 그것과 인생사를 대비하지는 않으며, 무상감도 나타나지 않는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① 3 ⑤ 4 ⑤ 5 ③ 6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 7 손수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환기하여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 과거에 대한 독자의 향수를 자극하여 화자의 아름다운 추억에 집중하게 한다. / 흑백 사진처럼 기억되는 화자의 추억을 서정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자신의 유년을 떠올리게 한다. 등

- 1 유사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으나,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에서 주격전도의 표현을 통해 낮잠에 든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③ ‘차르르 차르르’라는 의성어와 ‘뽀뽀뽀뽀’이라는 의태어를 활용하여 미루나무의 모습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7월’의 ‘넷가’라는 계절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평화로운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⑤ 시각, 촉각, 청각, 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열하고 있다.

2 멀리 분교에서 들리는 풍금 소리는 드러나지만 유년 시절의 화자가 부러움의 눈길로 분교를 바라보는 장면과 관련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누나가 다니는 분교’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답 해설** ②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 나갈 듯 가득 차고’와 관련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③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쉽게 이 흘러갔다.’와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와 관련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④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와 관련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⑤ ‘헤엄쳐 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뽕뽕뽕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와 관련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3 이 글의 화자는 동요를 부르고 미루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등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 또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에 오리를 잡으러 간 아버지의 집을 갖다 버리거나 망아지를 사 달라며 조르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아버지와 토끼를 잡으러다 놓치자 울상이 되는 등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냇물, 바람, 미루나무’ 등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오리’나 ‘망아지’, ‘토끼’를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에서는 ‘달콤한 바람’, ‘풍금 소리 썰이고’ 등에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보기>에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기>는 ‘던져 버린다’, ‘생각한다’ 등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과거 회상만 나타낼 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실 비판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4 ㉠은 청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풍금 소리’를 ‘(눈꺼풀 위로) 쌓이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공감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추상적 대상은 정서나 분위기 같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말하는데 ‘풍금 소리’는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미루나무 한 그루’가 ‘솟아오른다’는 표현은 시각적 이미지와 상응의 이미지에 해당한다. ② 청각적 이미지인 ‘노래’를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는 존재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③ 촉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바람’을 ‘달콤’하다는 미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 겨드랑이에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에서 자연과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햇살에 데워진’이라는 촉각적 이미지와 ‘둥근’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돌’을 묘사하고 있다.

5 ‘풍금 소리’는 여름날 한낮에 화자가 미루나무 그늘에서 낮잠에 빠져들 때 멀리서 들리는 소리이다. 이러한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풍금 소리’는 7월 어느 날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한낮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달려져 버린 고향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현재의 화자가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만, ‘풍금 소리’는 회상의 계기가 아니라 회상의 대상이다. ④ 유년 시절의 회상에서 어린 화자가 홀로 등장하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⑤ 미지의 세상에 대한 동경과 ‘풍금 소리’는 무관하다.

6 ‘(미루나무 그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박 잠이 들었다.’에서 실질적으로 잠이 든 주체는 ‘7월’이 아니라 유년 시절의 화자이다. 이는 주객전도의 표현으로, 이를 통해 자연과 동화된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07 성탄제

본문 174~17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6 화자는 직접 드러나 있지 않으며,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도 않다.
- 07 골짜기와 비탈, 넓은 언덕, 깊은 골 등이 등장하지만, 이것이 자연의 웅장한 풍광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9 5연의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반복하며 확장함으로써 위태로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④ 3 ⑤ 4 ② 5 ⑤ 6 폭력, 순수성 7 ‘물이꾼’, ‘밭카로운 소리’, ‘햇불’, ‘포수와 사냥개’는 폭력과 비생명성을 상징하며, 이와 대비되는 ‘쫓기는 사슴’, ‘나어린 사슴’, ‘따뜻한 핏방울’, ‘어린 사슴’은 순수성과 생명성을 상징한다.

1 1연에서는 ‘어두운 숲’에서 사슴의 ‘핏방울’로, 2~4연에서는 ‘넓은 언덕’의 ‘햇불’에서 ‘어린 사슴’으로 조망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 마지막 연에서도 ‘돌아가는 사슴’에서 ‘사슴의 두 뺨’, 눈 위의 ‘핏방울’로 역시 범위가 좁혀지면서 시상이 종결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과 6연의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에서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③ 흰색인 ‘눈’과 붉은색인 ‘핏방울’의 대비를 통해 ‘눈’의 차가움과 ‘핏방울’의 따뜻함을 대비시키고 있다. ④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과 같이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2 5연의 ‘죽은 이로 하여금 / 죽은 이를 묻게 하라.’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의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은 잔인하고 비정한 폭력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지만, 폭력성의 주체를 현대 문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2연과 3연에서는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표범과 늑대’가 등장하지만,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4연의 ‘빔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는 다친 어미 사슴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는 관련이 없다. ⑤ 6연의 ‘따뜻한 핏방울’을 통해 연약한 생명의 순수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연약한 생명에 사라지지 않도록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3 ㉠은 포수와 사냥개에게 사냥당한 짐승들로, 폭력의 희생양이다.

**오답 해설** ㉠~㉣은 모두 폭력적인 세계, 비생명성을 상징한다.

4 ‘햇불’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꾼’의 추격이 집요하게 이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당시 일제의 군국주의적 폭력성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햇불’을 우리 민족의 희망을 의미하는 소재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구원의 상징인 예수 탄생의 의미를 지닌 ‘성탄제’라는 제목과는 달리 생명에 대한 집요한 위협이 존재하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골짜기’와 ‘비탈’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에 시련을 당하던 우리 민족의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사냥할 때 내는 ‘쇠북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아직도 사냥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므로, ‘어

미 사슴'과 '어린 사슴'의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눈 위에 따뜻한 핏방울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통해, '어미 사슴'의 회복을 바라며 '어미의 상처'를 앓는 '어린 사슴'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어미 사슴'이 끝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이 글의 '쇠북 소리'는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제의 종소리를 연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소재이므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 <보기>의 '한 덩이 납'은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의 문명을 상징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는 모두 생명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폭력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순수, 생명성'과 '폭력, 비생명성'이 대립하고 있다. ③ 이 글의 '사슴'과 <보기>의 '새'는 모두 순수와 생명성을 상징한다. ④ 이 글과 <보기>의 포수는 각각 '사슴'과 '새'를 사냥하는 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08 새 1**

본문 180~185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문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03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 11 '~인 줄도 모르면서', '~지 않는다.' 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내신 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② 3 ④ 4 ④ 5 ⑤ 6 ⑥: 노래, 사랑, 체온(體溫), 순수(純粹)  
 ⑥: 뜻, 교대, 가식, 한 덩이 납 7 본질의 순수성과 그것에 도달하는 것의 어려움

- 1** 순수한 자연을 의미하는 '새'와 비정한 인간(문명)을 의미하는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다. ②, ③ 역설적 표현이나 영탄적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포수'와 '한 덩이 납'을 유사한 속성의 소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열거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 2** 순수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을 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⑤ 순수한 자연을 파괴하는 비정한 인간(문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③ 순수를 '새'로, 인간(문명)의 비정함과 폭력성을 '한 덩이 납'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새가 노래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3** 화자는 인간(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순수한 삶을 옹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 글에 등장하는 자연은 풍경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생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것이다. ② 화자

는 인간(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작품 표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인간(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화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현실에서의 괴로움을 회피하려는 모습이나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포수'는 '새'와 대비되는 존재로, 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존재이다.

**오답 해설** ① ①은 새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이다. ② ②은 인간(문명)을 상징하는 '포수'와 대비되는 존재로, 자연, 생명, 순수 의 표상이다. ③ ③은 인위적인 것, 가식을 의미하며, 화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⑤ ⑤은 인간(문명)에 의해 파괴된 순수한 자연을 의미한다.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는 순간 본질이 왜곡되어 본질에 다다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A]는 인식의 주체인 포수가 대상인 새(존재의 본질)에게 다가가고자 하지만 결국 도달한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존재의 본질에 다가가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질 인식에 실패하고 마는 모습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A]와 <보기> 모두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② [A]에서는 순수한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문명)을 비판하고 있지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대상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③ [A]와 <보기> 모두 자연의 순수한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와 <보기> 모두 본질적 의미가 없는 일상적인 사물은 가치가 없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

**09 장수산 1**

본문 186~191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자연(장수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며, 화자는 그 세계에 동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인생무상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 03 시·공간은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정적 현실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 07 점층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08 명사형과 줄표를 통해 화자의 지향이 지속됨을 여운 있게 표현하고 있다.
- 09 '흔들리우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0 ㉠의 '벌목정정'과 ㉡의 '멩아리 소리 찌르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1 '종이보다 희고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2 '빠를 저리우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3 '내음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② 4 ⑤ 5 ⑤ 6 내음새 7 호흡을 지속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시를 읽는 시를 걷다며 탈속의 세계에 동화되려는 화자의 정서적 흐름이 내면적으로 지속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1 화자는 탈속의 공간인 장수산에서 내적 시름을 걷다며 옷걸 증처럼 초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탈속, 무욕, 고요, 초연 등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② 특정 대상을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화자의 삶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자연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현실을 혹독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절망감이나 비애와도 거리가 멀다.

2 ‘~ 이랬거니, ~고녀, ~이란다, ~는다, ~노니’ 등 예스럽고 영란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직접 드러내는 한편, 동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시간의 역전이나 공간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수미상관의 기법은 시의 구조를 안정되게 만들고 운율을 형성하며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글에는 수미상관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적도 하이, ~다?’와 같은 종결 방식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결 방식이 사용된 표현 중 ‘걷다란다’만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다.

3 깊은 적막 속에 보름달이 비치고 하얗게 눈까지 덮여 있는 장수산의 밤 풍경은 ‘지극히 순수하고 고요한 세계’를 환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백색의 이미지로 그려진 장수산은 무욕의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나무가 베어지면 ‘찌르렁’ 하는 소리가 울릴 만큼 깊고 고요한 장수산은 ‘세속과 단절된’ 공간이다. 따라서 그 속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는 세속과 거리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옷걸 중’은 세속적인 이해에 연연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세속과 단절된 무욕의 공간’인 장수산의 이미지와 통한다. ④ 장수산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 속에 있지만, 화자의 마음은 ‘심히 흔들리우’고 있다. 이는 장수산의 고요함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갈등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장수산 속에서 ‘차고 울연히’ 걷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번뇌를 잊고 시름을 담담히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장수산의 고요로 인해 화자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정서적 갈등이 오히려 크게 느껴지고 있다. 즉, 화자의 내적 고뇌(정신적 동요)를 흔들린다며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현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화자의 내면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흔들린다는 구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⑤은 화자의 내면이 흔들리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공허함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고 있지도 않다.

5 화자는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도 심히 흔들리는 시름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화자의 내면을 고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외부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③은 하얗게 달빛이 비치는 장수산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③은 메아리 소리가 ‘찌르렁’하고 들릴 만큼 산이 깊고 조용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고요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소리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⑥에서 ‘다람쥐’의 움직임도, ‘멧새’의 울음도 없다는 것은 산이 매우 고요함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소재의 열거를 통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부각한 것

로 볼 수 있다. ③ ⑥의 ‘저리우는데’를 통해 촉각적 심상을 환기하며 고요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⑤은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눈 내린 겨울 달밤 장수산의 고요한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10 고고

본문 192~197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고뇌가 아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04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06 반어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 08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 14 고고한 높이가 드러날 수 있는 북한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부정적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
- 16 고고한 높이가 드러날 수 없는 상황들을 나열한 것이다.
- 17 ‘장밋빛 햇살’은 고고한 높이를 변질시키는 것이므로 화자의 소망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③ 4 ⑤ 5 ⑤ 6 차가운 수목 7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적 어법을 사용하여 기다림의 자세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날을 기다리며 그와 같은 고고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다고 판단할 만한 부분은 없다. ③ 아순이 도치된 부분이나 긴박감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북한산의 모습을 통해 화자의 삶의 자세를 환기하고 있지만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볼 부분은 없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높이를 회복하려면’을 가상의 상황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2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은 ‘고고한 높이’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따라서 ‘고고한 높이’가 드러나게 하는 ‘가볍게 눈을 쓰는’ 상태와 대비된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상태이다.

오답 해설 ① ‘얽은 화장’은 눈이 살짝 쌓인 북한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수목화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백색)가 드러날 수 있는 배경(얽은 묵색)에 해당한다.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으로, 고고한 높이가 드러나는 겨울 산과 대비되어 그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장밋빛 햇살’에도 쉽게 ‘변질’한다는 것은, 산봉우리의 고고함이 긴장을 조금만 늦추어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3 '겨울'은 '고고한 높이'가 드러나는 시간이다. 이를 부정적 현실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글의 시상 전개를 '부정적 현실'로 인한 고통의 심화'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오답 해설 ①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②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종결 표현의 반복은 기다림의 자세와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④ A에서 언급한 '높이'나 '겨울'의 의미, 특성 등이 B와 C에서 상세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북한산의 고고함과 그에 대한 자세가 구체화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4 ㉠('북한산')은 '고고한 높이'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이 '고고한 높이'는 화자가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은 화자가 지향하는 고고한 삶의 자세를 형상화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화자는 ㉠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과의 합일(㉠)이나 대상으로부터의 깨달음(㉡),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 대상과의 대비(㉣)는 적절하지 않다.

5 ㉠('고고한 높이')은 온 산을 뒤덮은 '신록'이나 '단풍', '안개', '적설'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높은 봉우리에만 살짝 눈이 쌓였을 때 드러난다. 따라서 획일화된 풍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세속과의 차별, 세속화에 대한 거부로 이해할 수 있다. ㉠을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북한산이 보여 주는 모습인 동시에 화자가 추구하는 고고한 정신세계를 상징한다. ② ㉠은 '겨울날 이른 아침', 그것도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썼을 때만 드러난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은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임을 뜻한다. ③ ㉠은 '다음 겨울의 어느 이른 아침'까지 간절히 기다려도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상황이 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절히 기다려야 겨우 확인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하고도 소중한 상태를 알 수 있다. ④ '정릿빛 햇살'에도 쉽게 변질한다는 것은, ㉠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 아슬아슬한 일이어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거문고

본문 198~20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5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11 화자는 '노인'이 어느 '향연'에 높이 앉아 '기린'을 잊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노인'이 '기린'을 잊고 '향연'을 즐긴다고 단정하거나 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15 해가 또 한 번 바뀌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나타날 뿐 희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② 4 ④ 5 ③ 6 이리 때, 잔나비 때 7 '기린'은 거문고를 비유한 표현으로, 거문고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린'이 울지 못한다는 것은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기린(거문고)'이 울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되어 절망적인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말의 순서를 바꾸는 어순의 도치가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둘 곳', '못한다'와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나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2연 1행에서 '손'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끝맺고 있으나, 이러한 시행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다. ⑤ 거문고를 '외로운 기린'으로 의인화하였지만, 이러한 의인화된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2 화자는 자신을 의미하는 '기린'이 '맘 둘 곳 몸 둘 곳' 없는 처지가 된 것은 맞지만 화자가 이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화자는 그러한 처지가 된 '기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맘 놓고 울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절망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② '외로운 기린'은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표현이다. ④ 화자는 현재의 암울한 상황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⑤ 화자는, '노인'은 '기린'을 울게 해 준 긍정적인 대상으로, '잔나비 때'는 '사람인 양 꾸며'며 쓰다니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3 [A]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을 아주 닫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닫힌 공간은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화자는 대상을 '내 기린'이라고 하면서 대상인 '기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 제시된 공간은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곳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A]의 상황은 화자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⑤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나'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4 '노인'은 과거에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노인'이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생각하며 '노인'이 '기린'을 잊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이 '기린'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이 글은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현실을 비판한 시라고 하였다. ② 화자는 '이리 때', '잔나비 때'만 몰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기린'이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고난 극복의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거문고)'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⑤ '이리 때'와 '잔나비 때'는 '기린'을 억압하는 존재로, 1930년대 후반 일제 강점기의 부정적이고 부당한 권력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5 ㉠은 '기린'이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활용하여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또한 '침침한 어둠'과 추위가 있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의 의미를 활용하여 '자유스럽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밤'이 밝은 아침과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② ㉠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으나, ㉡에서는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라고 하면서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④ ㉠과 ㉡에서 모두 대상과의 문답은 찾을 수 없다. ⑤ ㉠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에서는 '하루살이처럼 허공에 부유하는' 모습을 통해, 방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지명 수배자 전단이 다산에 대해 반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설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09 1~8행에서 자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자연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지는 않다.
- 10 화자가 생각하는 다산의 모습은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당시 정계의 관점과는 대조적이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겨울 바람은 차고’, ‘바람은 차고 바람 세에 / 툭날 같은 눈발 섞여 치는데’ 7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 1 점층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강진강과 도암만을 거쳐 고통까지 이동하는 화자의 경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그 역시 맨발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에서 다산이 겪었을 고초를 추측하고 있다. ④ ‘겨울 바람’, ‘툭날 같은 눈발’을 통해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그래 한잔 들게나 다산’에서 말은 건네는 방식으로 다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2 다산이 살던 시대를 ‘스러져 가는 국운’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반어적 표현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겨울 바람은 차고 / 옷깃을 세운 마음은 더욱 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다산과 같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탄압 받는 현실이 현재에도 지속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기민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빗자한 ~ 천주학 수괴’에서 보듯이, 당시 정치권에서는 다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화자는 다산에 대해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 스스로의 양심과 지식을 사랑’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3 ‘다산’은 ‘기민시 애절양’과 같은 작품을 지으며 백성, 즉 민중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그로 인해 당시 정계에서는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보기>에서 ‘나’는 ‘엄동 혹한’, 즉 암울한 현실 속에서 버스에 편 성애꽃을 보며 서민, 즉 민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음’에서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다산’이 민중의 편에 서기는 했지만 이 글을 통해 ‘다산’이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기>의 ‘나’ 역시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다. ②, ③ 이 글의 ‘다산’과 <보기>의 ‘나’ 모두 성공을 위해 살아온 삶을 성찰했다거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글의 ‘다산’은 당시 정치계로부터 탄압을 받아 유배를 갔으나 <보기>의 ‘나’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 4 당시 정계에서는 ‘민심을 흥흥케’ 한 주체로 다산을 지목하였다. 따라서 다산이 ‘민심을 흥흥케’했다는 이유로 당대 정치권을 비판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다산이 유배 갔던 길을 되짚어 오며 그가 겪었을 고초를 상상하고 있다. ② 다산이 관료로 봉사하였다는 것을 그가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이었

다는 사실과 연결할 수 있다. ③ 다산은 애민 사상이 담긴 ‘기민시 애절양 등’의 작품을 지었다. ⑤ 당시 정계에서는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산을 ‘천주학 수괴’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 5 ‘누군가 거기 맨 나중에 /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 사항 하나’를 통해 ㉠ 속 인물이 아니라 ㉡의 맨 아래에 누군가 적어 놓은 메모를 보고 화자가 다산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다산이 유배 오던 길을 되짚어 걸어가고 있으므로, 여정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자는 겨울이라 춥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로 인해 내면(마음)에서 추위를 느끼는 것이다. ④ 화자가 짐을 이르지 못한 것은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고뇌 때문이다. ⑤ 화자는 사람과 시대와 양심과 지식을 사랑했던 다산이 탄압받았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1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09 과거에 화자가 북방을 떠나 한반도에서 나약하고 비겁하게 살던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3연에 드러나 있으나, 화자가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는 않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절망감(상실감) 7 ㉠은 우리의 광활했던 영토를 잃은 때를, ㉡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길 수밖에 없는 현재를 의미한다.

- 1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잊지 않았다’ 등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각 연을 명시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② 공간의 변화(북방 → 한반도 → 북방)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자작나무’, ‘이깔나무’, ‘보래구름’ 등과 같은 자연물은 등장하나, 이러한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공감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 2 4~6연에서 화자는 현재 북방으로 되돌아온 상태로, 옛 영토에서 민족의 자취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인 ‘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존재이다. ② 3연의 ‘밤에는 먼 개 소리에 ~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3연의 ‘따사한 햇기에서 ~ 낮잠을 잤다’에서 알 수 있다. ④ 6연에서 알 수 있다.
- 3 [B]에서 화자는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에서 보듯이 타의에 의해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쫓겨났으나, [A]에서는 단일한 삶을 찾아 자의로 북방을 떠나 한반도로 갔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북방 → 한반도’의, [B]에서는 ‘한반도 → 북방’의 공간 이동이 드러나 있다. ② [A]의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과 [B]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에서 열

거품을 활용하고 있다. ㉓ [A]는 화자가 북방을 떠나 한반도에 온 과거의 상황을, [B]는 한반도를 떠나 북방으로 되돌아온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㉔ [B]의 4연 1행 을 통해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알 수 있지만, [A]에는 그와 같은 세월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4 ㉔에 의인화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는 우리 민족이 북방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㉔에서는 '배반하고'라는 시어를 통해 우리 민족이 안락과 안위만을 생각하여 북방을 떠나 남하한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㉓ ㉔은 우리 민족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여 안일하고 편한 삶을 찾아 한반도로 왔음을 보여 준다. ④ ㉔은 일제의 탄압으로 한반도에서 살 수 없는 현실을 나타내며, 이는 유미인의 비애에 해당한다. ⑤ ㉔은 힘이 있었던 과거와 힘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현재를 대비하여, 자량과 힘이 사라진 민족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5 1연의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홍안령', '음산', '아무우르', '승가리'는 과거에 우리 민족이 떠난 광활한 영토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2연은 주변 자연물들이 우리 민족을 떠나보내며 슬퍼했을 정황과, 북방의 소수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슬퍼했을 장면으로, 화자가 상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③ 3연에서는 '슬픔도 시름도 없이', '게을리' 광활한 영토를 잃고 축소된 '먼 앞대'로 떠난 상황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4연의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련에 쫓겨'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일제의 핍박으로 한반도에서 살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⑤ 6연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의 옛 땅인 북방으로 쫓겨 간 화자가 떠돌린 상실의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 14 나비와 철조망

본문 216~22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7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비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2연의 '꽃밭'은 분단 이전의 평화롭고 아름답던 조국을, 5연의 '꽃밭'은 분단 극복 후의 화해와 통일의 세계를 상징한다.
- 10 '꽃밭'에 가고자 하지만 여러 시련을 겪는 대상은 화자가 아니라 '나비'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③ 3 ② 4 ② 5 ② 6 나비 7 2연의 '꽃밭'은 분단 이전의 평화롭고 아름답던 조국을 의미하는 반면, 5연의 '꽃밭'은 분단 극복 후의 화해와 평화의 세계를 의미한다.

1 화자가 바라보는 '나비'의 여정이라는 우의적 상황을 바탕으로, 분단 현실의 극복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나비'가 아니라, '나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② 수미상관의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분단되기 이전인 과거와 분단된 이후인 현재가 대비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과거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한 미래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 대한 염원은 나타나 있지 않다.

2 화자는 시적 대상인 '나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시적 대상인 나비와 동일시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비', '철조망', '꽃밭' 등의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1연의 '열어……', 4연의 '벽……', 5연의 '기(旗)여……'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나비의 괴로운 비행은 끝나지만 우리 민족의 대립은 계속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분단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3 ㉔은 '꽃밭'으로 상징되는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며, ㉔은 비록 좌절되기는 했지만 '청무우밭'에 내려가려 하고 있으므로, 둘 다 특정한 공간을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㉔이 '시푸런 강'과 '산'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㉔ 역시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로 보아, 현실의 가혹함에 좌절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두려움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㉔은 이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꽃밭'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으며, ㉔도 '청무우밭'을 동경하고 있다. ④ ㉔은 평화와 화해의 세계인 '꽃밭'을 갈망하므로 남과 북의 조화로운 삶을 바란다 할 수 있지만, ㉔은 조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㉔은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난을 헤치며 날아가고 있지만, ㉔은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혹한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다.

4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치열한 전투로 인해 적개심이 가득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철조망'이라는 차가운 금속성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쟁과 분단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나비가 날아가야 할 길이 '몇(마일)이나 더 남았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헤쳐 나가야 할 고난의 길이 많이 남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모질고 시린 '바람'이 다시 부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소망과 염원이 매우 강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5 '싸늘한 적지'는 남북의 군사적 대립 상황을 의미하며, 나비가 비행을 끝내고 도달할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은 분단의 상황을 의미한다. 즉, '싸늘한 적지'에서 벗어나 나비가 도달하는 곳이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이며,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을 통해 나비의 괴로운 비행이 끝나더라도 우리 민족의 대립은 계속됨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시푸런 강', '산', '벽'은 모두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해당한다. ④ 나비가 분단 극복 후의 화해와 평화의 세계를 상징하는 '마즈막(꽃밭)'을 그리는 것은 통일에 대한 강한 염원에 해당한다. ⑤ 벽은 어설피다고 표현함으로써 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어, 의지만 있으면 분단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15 화체개현 / 누에

본문 222~22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02 「화체개현」과 「누에」 모두 자연물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것은 아니다.

05 슬픔이 아니라 감격,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06 물아일체를 경험하고 있을 뿐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8 물아,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 12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 14 누에의 분투가 외부의 도움이나 강제 없이 능동적, 주체적,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표현한 것이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 7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능동적·주체적·자주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 1 「화체개현」은 밤에서 아침으로, 「누에」는 누에가 누에나방으로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체개현」만 화자가 '나'로 작품의 표현에 드러나 있다. ③ 「화체개현」만 반복('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④ 「화체개현」과 「누에」 모두 어조의 변화나, 이를 통한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화체개현」만 영탄적 표현('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아 여기')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2 「화체개현」과 「누에」 모두 자연물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화체개현」은 '석류꽃의 개화'에 '우주의 탄생'이라는, 「누에」는 '누에의 변태'에 '존재의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체개현」의 '석류꽃'이나 「누에」의 '누에'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다. ③ 「화체개현」에서는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침'을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누에」에서는 '동굴, 밤'과 같은 어둠의 이미지가 '해맑은 아침'과 같은 밝음의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는데, '밝음'은 성장·성숙한 존재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일 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④ 「화체개현」에서 '벽에 기대'는 것은 무언가를 보기 위한 준비 자세, 곧 탐구나 구도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고, 「누에」에서 '벽을 뚫'는 행위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다. ⑤ 「화체개현」의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물아·물아일체의 경지를, 「누에」의 '밖에서 구멍을 뚫어 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는 어떤 도움이나 강제도 없는, 행위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표현한 것이다.
- 3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오는 것은 일정한 관문을 통과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일정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새로운 단계의 생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는 과정에 뒤이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단계의 생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는 것을 일정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에 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누에가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추는 것은 누에의 상태에서 변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므로, 종래의 상태에서부터의 이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혼자 웅크린 변태기의 시간'은 기존의 상태인 누에도 아니고, 새로운 상태인 누에나방도 아닌 중간적인 상태에 해당한다. ③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는 것은 누에나방으로서의 삶을 위한 준비, 곧 껍질이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하늘 백성의 날갯짓'은 누에나방이 되어 하늘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새로운 사회적 지위나 상태를 획득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 4 <보기>의 '나도 가만 눈을 감네.'는 화자가 개화라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 속에 동참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화체개현」의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가 않는다.'는 화자가 개화에 동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화를 통해 탄생한 석류꽃 속 우주에 동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체개현」과 <보기> 모두 꽃이 피는 현상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② 「화체개현」에서는 개화를 '우주가 열리는' 것으로, <보기>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모두 개화에 창조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체개현」에서는 '개화'가 '문득' '터'지는 것, 즉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보기>에서는 '개화'가 꽃잎이 '한 잎 두 잎' 피어나다가 '마침내 남은 한 잎이 / 마지막 떨'게 되는, 순차적·점진적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다. ④ 「화체개현」은 '파동', <보기>는 '떨고 있는 고비'를 통해 개화의 극적인 순간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 5 ㉠은 석류꽃의 개화에 몰입하여, 자신의 존재나 의식조차 망각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물아의 경지, 물아일체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무기력한 삶, 부정적 현실, 세속과 절연한 삶, 지난날의 어리석음이나 과오와는 거리가 멀다.

16 낙화

본문 228~233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4 화자는 이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 07 낙화와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 자연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7 화자는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넘어 성숙한 자세로 이별을 감내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 1 '분분한 낙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등에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는 낙화(이별)를 아름답게 받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어떤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얼마나 아름다운가'에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이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③ '하롱하롱'과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이별하는 장면을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④ 특정한 청자는 드러나지 않으며, 작품 전반에서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나의 사랑, 나의 결별'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시구를 배치하여 이별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 2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자연 현상에 빗대어,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이 영혼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됨을 깨닫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꽃이 지고 나야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이별 뒤에 성숙이 온다는 깨달음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이겨 내고 있다. ②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이별 뒤에 결실을 맺는 미래(가을)를 지향하고 있다. ④ 부정적 상황 속에서 방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영혼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 ⑤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허무함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3 청춘기의 열정을 잃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낙화 뒤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아의 성장으로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자아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야 할 때'는 이별을 해야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③ 이별을 축복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별이 영혼의 성숙으로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⑤ '슬픈 눈'을 통해 시련을 겪는 자신을 성찰함과 동시에 영혼이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4 화자는 꽃잎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별이 영혼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이'는 떨어지는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아니다. ②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떨어지는 꽃잎은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감과는 관련이 없다. ③ '하롱하롱'은 꽃잎이 가볍게 날라리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므로, 대상의 정적인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⑤ '슬픈 눈'은 이별의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으로, 안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5 '가을'은 꽃이 지고 난 뒤 열매를 맺는 계절로, 화자에게는 이별 뒤에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자연의 섭리처럼 이별을 통해 영혼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 현실을 초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꽃이 피고 지는 봄이라는 계절과, 사랑과 이별을 겪는 '나의 청춘'을 통해 화자가 청춘기를 겪음을 알 수 있다. ② 사랑과 이별을 겪는 화자의 정서를 '걱정을 인내한'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이별로 인한 슬픔을 느끼지만 이를 감내하며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③ 사랑이 지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이별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별의 정면을 꽃잎이 아름답게 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과목

본문 234~239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화자는 과목에 열린 과물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또한 방어적인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05 '나를 경악케 하는 것은 없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06 공간이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10 '시를 잃'은 화자와 열매를 맺은 '과목'이 대비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④ 3 ④ 4 ⑤ 5 ⑤ 6 시력을 회복한다 7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현상을 낯설게 느끼게 한다. / 작품에 무게감을 더하며 상황을 적절하고 실감 나게 표현한다. / 시상을 압축하여 보여 주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어 독자를 주목시킨다. /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준다. 등

1 '과목'을 '그'라고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과목과 합일하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1연은 4연에 반복하여 과목의 과물들을 통해 느낀 경이로움과 충격을 강조하고 있다. ② 화자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상황을 보고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④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소멸의 계절인 가을의 속성을 '모든 것'이 '멸렬'한다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2 <보기>에서는 화자 자신을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 한 마리 눈 먼 벌레'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이 글은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는 '황금빛'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해가 지는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붉은 황토'라는 색채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이 글에서 '시를 잃'은 화자가 '과목'을 얻은 '과목'과 대비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기>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대상인 '과목'이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3 ①은 지는 해, 즉 붉게 물든 노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①은 이 글의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①이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는 ①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고 있으므로, ①이 화자에게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화자가 성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보기>에서 화자는 과거를 떠올리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 화자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시를 잃고'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지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①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4 화자는 과목에 과물들이 무르익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과목이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실을 맺었음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연 현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과목의 과물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시를 잃고 저무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화자가 과목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과목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는 과목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을 뿐, 자연과 더불어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5 화자는 '시를 잃고 저무는', 즉 삶의 의미를 잃고 허무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과목에 달린 과물들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시력을 회복') 있다. 따라서 화자가 '시를 잃고 저무는'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과목에 과물들이 열린 것을 '사태'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을 '경악'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가 과목에 달린 과물들을 보고 느낀 경이로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박질', '붉은 황토'와 '비바람'은 과목이 결실을 맺기 위해 거친 시련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 '황홀한 빛깔과 무게의 은총'은 과목이 맺은 결실인 '과물들'을 비유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가 '과목'의 '과물들'에 대해 예찬함을 알 수 있다. ④ 4연은 1연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가 과목의 결실인 '과물들'을 바라보며 느낀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산이 지닌 덕성을 나열하며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산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 05 혼탁한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은 드러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07 6연에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산이 지닌 희생적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 08 촉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㉒ 2 ㉔ 3 ㉔ 4 ㉑ 5 ㉑: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㉑: 고산, 명산  
6 배려심 있고, 다정하고, 신성하고, 세속성을 거부하고, 가르침을 주고, 인간적이고,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포용력이 있는 산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1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시적 대상인 산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표현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5연(~ 범으로)과, 6, 7연(~ 되고 ~ 된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직유와 활유, 의인 등 다양한 비유를 활용하여 산이 지닌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모든 연을 현재형 종결 어미 '-니다'로 끝맺고 있다.
- 2 산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2연에서 새나 벌레, 짐승들을 배려하는 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6연과 7연을 통해 산의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연의 '높은 꼭대기에 신을 뉘신다'를 통해 산이 지닌 신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4연의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를 통해 세속적인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연을 통해 사람과 함께하려는 산의 다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3 5연을 통해, 산이 '나무를 기르는' 인내심과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겸손함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것은 이끌어 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 새벽녘에 드리워지다가 해 질 무렵에 사라지는 산그림자를 통해, 산의 모습을 비상하는 '학'과 '기러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를 통해, 산이 비상하면서도 다른 대상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연에서 산은 사람이 '고달프면' 쉬게 하고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가는데, 이는 사람에게 다정한 산의 모습, 즉 인간을 사랑하는 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④ 8연에서 산은 봄과 여름 '두 계절'이 공존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둘을 아우르는 포용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 글과 <보기>의 화자 모두 대상인 '산'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 산과 사람을 대조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생무상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글에서는 산과 사람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대상인 산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찾을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화자는 세속적인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에서도 산과 비교하여 '맨날 변해 쌓'는 인간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산을 활용하여 현실을 신랄하게 파헤치는 모습은 이 글과 <보기> 모두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산의 신성함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대상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보기>에서도 산의 신비로운 면모를 다른 대상과 대비하여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시적 허용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해학적 효과와도 관련이 없다.
- 03 점강법을 통해 역설적인 발상을 보이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11 화자가 가을 떠갈나무 숲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여름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㉔ 2 ㉔ 3 ㉕ 4 ㉔ 5 ㉒ 6 위로 7 ·여름: 풍성한 잎으로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다. ·가을: 자신의 잎을 떨구어 생명체들을 품어 주었다.

- 1 '눈부신 날갯짓 소리', '콩밭에 뿌려 둔 노래', '파릇한 산울림'에서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반어적 표현이나 점층법은 활용되지 않았다. ③ 6연에서 화자와 떠갈나무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떠갈나무 숲으로부터 화자가 위로를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화자의 의자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시선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2 떠갈나무 숲은 모든 생명체들을 포용하며 안식처가 되어 주는 존재로 생명체들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가 그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6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가 떠갈나무 숲을 바라보는 현재 시점은 가을이지만, '이 숲에 그득했던 풍영이들의 혼례 /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에서 여름날의 떠갈나무 숲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③ 4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연의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 '쌈기집', '벌레들의 알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6연에서 화자는 떠갈나무 숲과 교감하고 있지만, 그에게서 위로를 받을 뿐 현실적인 고뇌의 해결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④ 떠갈나무 숲은 잎을 떨어뜨려 다른 생명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화자를 위로한다. ②, ③ 떠갈나무 숲은, 여름에는 풍성한 잎으로 곤충과 동물들의 터전이 되어 주고, 가을에는 잎을 떨구어 곤충과 동물들을 보호해 준다.
- 4 ㉑은 떠갈나무 숲과 하나가 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시구로, 자연과의 동화와 교감을 의미한다. 떠갈나무 숲과 벌의 색채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지는 않다.
- 5 <보기>에서 행간 결침의 시어는 다음 행에 놓아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했다. 그런데 ㉒를 다음 행으로 옮기면 '쫓아 아름다운

목청'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간 걸침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㉔를 다음 행으로 옮기면 '아니면 썰기집이거나,'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③ ㉔를 다음 행으로 옮기면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④ ㉔를 다음 행으로 옮기면 '산짐승의 젓꼭지처럼'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⑤ ㉔를 다음 행으로 옮기면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20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본문 252~25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화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역설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05 산 위와 산 아래에서 보는 세상의 모습을 대조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연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 07 19~20행에서 '아닐까'라는 물음의 형식을 반복하여 깨달음을 전달하며 독자에게 판단을 맡길 뿐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① 3 ③ 4 ② 5 ④ 6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7 화자는 '실악산 대청봉'에서 세상살이를 속속들이 다 알 것 같다고 여겼지만, '속초 원통'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산 위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상을 '멀리서'도 보아야 하지만 '가까이서'도 보아야 하며 삶을 보는 관점이 다양해야 함을 깨닫고 있다.

- 1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물음의 형식을 반복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화자가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명령형 어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산, 바다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2 화자는 실악산, 속초, 원통에서의 경험을 통해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화자가 타인을 위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속초와 원통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통해 현재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화자가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④ 화자는 대청봉에서 산과 바다 같은 자연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속초와 원통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 3 ㉔은 화자가 가 보지 않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공간이다. 화자는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㉔에 가 보지 않았겠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즉, ㉔은 '당신'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㉔은 화자가 직접 경험한 공간이므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한편 ㉔은 화자가 '당신'이 깨닫지 못한다고 여기는 공간으로,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서해에 가 보고 싶어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㉔에서 화자는 '실악산 대청봉'에서 세상을 다 알 것 같다고 했던 생각을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시상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화자는 일관되게 ㉔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㉔이 시상을 전환시킨다고 볼 수 없다. ④ <보기>에서 화자는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㉔을 아직 가 보지 않았다 하였으므로, ㉔을 화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추억의 공간이라 할 수 없다. ⑤ ㉔은 화자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경험을 한 공간에 해당한다. 화자 자신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이라 할 수는 없다.

- 4 화자는 실악산 대청봉 위에서 산, 마을, 바다를 내려다보며 '세상 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라고 하였으므로, '가까이'에서 세상을 보아야 함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실악산 대청봉에서 산, 마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운동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다고 하였다. ③ '합정도 아주머니들'은 속초에서, '마늘 장수'는 원통에서 화자가 만난 인물로, '실악산 대청봉'에서 산, 마을, 바다를 멀리서 본 경험과 대조되는 '가까이'에서 바라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속초'와 '원통'에서의 경험을 통해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멀리서만', 아니면 '가까이서만' 보고 있지 않으니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와 '원통'에서의 경험은 화자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실악산 대청봉'에서 본 세상의 모습과 '속초, 원통'에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야 함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멀리'와 '가까이'에서 본 세상의 모습을 비교하며 삶을 바라볼 때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5 [A]에서 온 세상을 다 알 것도 같다고 자만하던 화자는, [B]에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A]와 [B]의 두 공간에서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세상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화자의 자만심이 드러나 있다. ② [B]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을 뿐, 인간의 세속적 욕심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는 자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으나, [B]에서 자연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와 [B] 모두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지, [A]에서의 깨달음이 공간의 이동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다.

## 21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본문 258~263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겨울 감나무'와 같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04 '바르르, 휘휘'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상인 겨울나무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① 4 ② 5 조막만 한 새 6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 내도록 '땅'이 '실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땅이 나무에 베풀어 주는 혜택을 의미한다.

**1** 겨울 감나무 가지들의 모습에서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후 이러한 깨달음의 감동을 놓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② 명시로 연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2연뿐이다. ③ 자연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⑤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시상을 맺고 있지 않다. 4연의 ‘-느니’는 하계할 자리에 쓰여,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2** ‘망속’은 겨울나무가 생명을 이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생명력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둠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것이 감나무의 ‘당참’과 대비된다고도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지들’이 ‘바르르 떨거나 사운거리거나 건들대거나 휘휘 후리거나’ 하며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리는 것은, 가지들이 저마다 가지 있는 존재로 살아감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동치’는 ‘웬만해선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춧돌’ 같은 존재로, 감나무의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③ ‘그 무게를 견딜힘’은 조막만 한 새의 무게로, 물관을 통해 전달되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⑤ ‘땅심의 배려’는 감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으로,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 내게 하는 힘으로 기능한다.

**3** 1연에서 ‘жат은 바람 속’의 겨울 감나무 가지가 ‘제 숨결 닿는 만큼의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모두 다 서로를 휘방 놓는 법이 없이’, ‘제 감냥껏 한세상을 흔들거린다.’와 연결하여 자신의 분수에 맞게 세상의 순리대로 나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나무의 생명력이 다른 자연물에게 전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겨울 감나무의 가지들은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주요 제재라 할 수 있다. ③ 1연과 2연에서 겨울 감나무 가지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④ 3연에는 감나무가 겨울을 이겨 내도록 하는 생명의 원리를 깨달았음이 드러나 있다. ⑤ 4연에서는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감동을 놓치며 살아온 인간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4** 이 글에서는 ‘-니다’를 사용하여 겨울 감나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드러내며 시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보기>에서도 ‘-느니다’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반면 <보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자의 태도도 ‘미움 → 가엾음, 연민 → 미움 → 그리움’으로 변화하고 있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대상을 부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는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이 글이 아닌 <보기>에서 우물 속에 비친 풍경과 같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종결하고 있다.

## PART 4 | 고전 산문

### 01 천자를 이긴 아이

본문 266~27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5** 천자의 요구나 아이가 제시한 선결 조건이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말에 불과한 것이므로, 전기적 요소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7** 사물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물로 제시되는 것은 전설이다. 이 글은 흥미 위주의 민담으로, 진실성과는 거리가 있다.
- 10** 천자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 11** 임금이 아이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아이가 임금을 먼저 찾아간 것이다.
- 13** 아이는 처음부터 ‘포장’과 ‘가마’를 만들 생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재료를 구하지도 않았다.
- 14** 아이는 애초에 ‘포장’과 ‘가마’를 만들 생각이 없었으므로,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다.
- 17** 천자가 제시한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천자가 문제를 냈으로써 초래된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것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② **3** ② **4** ④ **5** ② **6** 문제 상황 **7**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교훈을 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 통쾌함을 준다.

**1** 아이는 중국 땅을 모두 덮을 포장과 두만강 물을 모두 담을 가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 땅의 크기와 두만강 물의 양을 재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그 과제를 천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결국 천자의 불합리한 요구에 불합리한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천자 스스로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천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아이가 자청하여 나선 것이다. ②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③ 재료 부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④ 아이는 ‘포장’과 ‘가마’ 대신 ‘차’와 ‘주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2** <보기>에 따르면 민담에서 아이와 대결하는 상대는 세속적 권력 관계의 우위에 있는 인물이며, 신적 존재가 아니다. 이 글의 천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지혜라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는 신화 속 영웅의 어릴 적 모습과 유사하다. ③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대결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천자의 세속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아이가 발휘한 지혜는 인간적 재능에 해당한다. ⑤ 아이가 받은 벼슬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성취한 세속적 성공에 해당한다.

3 구술자는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자신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조선에 있던 아이가 자와 주발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그랬어요’, ‘건너갔어요’, ‘들어서니까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래서 그거를 참 다 임금님께서 해주시니까’에서 ‘참’과 같은 군더더기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 ⑤ ‘그거를 참 다 임금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거를’에서 ‘그거를’,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래 중국을 건너가’에서 ‘중국을 건너가’라는 말을 불필요하게 반복하고 있다.

4 천자의 요구와 아이가 제시한 선결 조건 자체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 땅의 크기를 재거나 두만강 물의 양을 재는 것과, 중국 땅을 덮거나 두만강 물을 담을 포장이나 가마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아이는 이러한 불가능함을 일깨움으로써 천자의 승복을 받아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천자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두만강 물을 모두 담을 ‘가마’와 중국 땅을 모두 덮을 ‘포장’을 바치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 ② 아이는 중국 땅의 크기와 두만강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며 그 측량을 천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③ 아이가 ⑥와 같이 요구한 이유는, 선결 조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유도하여 천자의 요구 또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아이는 선결 조건에 대해 천자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⑥와 같이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천자가 아이의 지혜에 승복하여 자신의 요구를 철회한 것이므로, 자신의 요구가 불합리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그래서 그거를 참 다 임금님께서 해 주시니까 중국 천자한테로 들어서니까는,’에서 요약적으로 진술된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이동은 전후의 장면을 오버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임금님에게는 근심 어린 표정이 어울린다. ③ 아이는 당당한 태도로 천자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장면의 삽입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가 중국 땅과 두만강을 둘러보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다. ⑤ ‘어른을 뛰어넘는 아이의 지혜’가 주제이다.

## 02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

본문 272~277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5 과거와 현재의 순서가 바뀌는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지 않는다.
- 08 득거리를 악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징벌과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11 득거리는 상전이 ‘수저가 차면 잡숫지 않고 역정을 몹시’ 낸다며 여접 아낙도 속였다.
- 13 상전은 손가락을 들다가 뜨거움을 느끼고 ‘드거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뜨거움을 표현한 것이지 득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
- 15 여접 아낙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득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
- 17 안쓰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뻔뻔함에 기가 막혀 대응을 포기한 것이다.

18 득거리는 어리석은 척 가장하여 상전을 속이고 있다.

19 상전이 득거리에게 발을 내리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② 3 ③ 4 ⑤ 5 ② 6 드거라 7 종놈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잘못이니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나 종놈이 그런 행동을 한 데는 당신의 인색함이나 배려 없음도 원인이 되고 있으니 당신 역시 반성하십시오.

1 배경을 묘사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득거리(得巨里)란 이름의 하인이 있었는데 매우 교활한 놈이었다.’에서 교활한 득거리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② 득거리와 상전, 여접 아낙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다. ④ 득거리가 상전을 속이고 밥상을 빼앗아 먹은 일화와 술을 빼앗아 먹은 일화를 배열하고 있다. ⑤ ‘이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불췌 일어났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득거리는 추운 날씨를 핑계로 수저를 달구어 놓음으로써 상전이 수저를 들다가 ‘드거라’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득거리의 행동은 추운 날씨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상전을 속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득거리가 음식을 나눠 주지 않는 상전의 처사에 불만을 품게 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지만, 상전이 평소에 권위적이었고 그에 대해 득거리가 불만을 품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여접 아낙은 득거리의 행동을 사실대로 증언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간질, 즉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어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상전은 자신의 행동을 실수로 간주하지 않으며, 득거리의 행태에 대해서도 안도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⑤ 상전은 득거리를 꾸짖다가 득거리의 뻔뻔한 변명에 기가 차서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득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글의 득거리는 ‘드거라’와 ‘득걸아’라는 말의 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상전을 속이고 밥상을 차지하였으며, <보기>의 쇠뿔이는 ‘아번’과 ‘아버지’라는 말의 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샌님을 욕보이며 조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득거리와 쇠뿔이 모두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다. ② 득거리와 쇠뿔이 모두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④ 쇠뿔이와 득거리 모두 집단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 않다. 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도대체 샌님이 글을 배웠소?”라고 말하는 쇠뿔이뿐이다.

4 ㉠에서 상전은 득거리의 뻔뻔한 억지에 기가 막혀서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음식을 먹고 싶거나 술을 마시고 싶다는, 득거리 개인의 욕망 실현이 ㉠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② 득거리는 뜨거운 손가락을 만졌을 때 상전이 보일 반응을 예상하고 손가락을 달구는 계획된 행동을 하였다. ③ ㉠에서 상전은 여접 아낙이라는 관련 증인을 추궁하고 있다. ④ 득거리는 자신의 속임수에 대해 “선네는 샌님께서 이 밥상을 돌려주시려고 선네 이름을 부르 줄로 알았습쇼.”, “꽃물이 술에 떨어져 깨내지 않을 수 없기에 이렇게 건져 내고 있습니다요.”와 같이 무지한 척, 어수룩한 척 가장하는가 하면, “선네는 수저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기에 차서 들지 못하시겠다 싶어 불에 쪼여 녹여, 나리께서 잡숫기 편하게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와 같이 충성스러운 척 가장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다.

5 부제는 작품의 내용에 부합하면서 표제의 의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꾼에 가까운 득거리의 행태를 서술하며 작품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가 부제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득거리의 행동은 개인의 욕망 충족이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신분의 벽을 허무는', 또는 '시대의 부조리를 밝히는' 행위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④ 득거리의 행동은 성공으로 마무리된다. ⑤ 득거리의 행동은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더불어 사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

### 03 수성지

본문 278~285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07 사건이 전개되면서 공방과 국양의 갈등, 국양과 '근심의 성' 사자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11 국양은 공방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백안을 보이며 꺼렸다.
- 15 공방이 돈을 의인화한 존재는 맞지만, '근심의 성'을 함락시킨 것은 국양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⑤ 2 ③ 3 ② 4 ⑤ 5 ③ 6 근심의 성 7 ④는 '외로운 군주를 버리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로 해석할 수도 있고, '술을 술병에 담아서 왔으니'로 해석할 수도 있다.

- 1 작중 인물의 성격과 관련된 일화들을 삽화의 형식으로 나열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옛날 이정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 지금 이 진법을 쓴 것이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작중 상황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②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며, 온화한 바람이 불고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비쳤다.'에서 근심이 모두 사라진 작중 상황에 조응하는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 ③ '장군이 해구로부터 병 안의 물을 쏟아붓듯이 기세등등하게 파죽지세로 내려오니,' '바다에 밀물이 몰려오고 강가의 성곽에 비가 퍼부어 범람하는 듯했다.'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④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행적 흐름에 따라 '근심의 성'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2 국양이 천군에게 올린 표의 내용 중 '제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아 오랫동안 강호에 떠다니는 신세였거늘,'을 통해, 국양은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채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인공은 공방이 국양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천군에게 공방을 불러올 것을 제안한 것이다. ② 천군이 국양의 말을 의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것을 짐작할 만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④ 공방은 천군이 국양에게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내리고자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국양의 무례함을 질책하고 회유하였다. ⑤ 모영은 천군의 명령에 의해 국양의 정서기가 된 것이지, 자신의 의사로 국양의 곁에 있게 된 것은 아니다.
- 3 이 글에서 굴원은 천군을 힘들게 하는 '근심의 성'에서 저항하는 인물로, 질정(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감정과 관련된 존재이다. 따라서 '오직 굴원만이 굴복하지 않고 머

리를 풀어 헤치고 달아나'는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마음속에 근심이 재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거울 속의 얼굴이 쉽게 시들고 머리카락이 서리처럼 하얗게 세'는 것은 근심에 빠져 고통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천군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근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국양 장군은 술을 의인화한 존재이다. 따라서 '장군이 해구로부터 병 안의 물을 쏟아붓듯이 기세등등하게 파죽지세로 내려오니,'는 마음껏 술을 마시는 장면을 비유적 표현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며, 온화한 바람이 불고 봄날의 따뜻한 햇빛이 비쳤다.'는 술이 몸속으로 들어오자 기존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⑤ '신용하던 자는 노래 부르고, 팔뚝을 내지르며 분개하던 자는 발을 구르며 춤을 추었다.'는 술을 마시면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따라서 술의 일반적인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상대방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모월 모일, 용주·병주·뇌주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은 '근심의 성'에 격문을 보내노라.'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 상대방에게 권위를 보이고 있으며, '격문을 받는 날로 어서 백기를 들라!'에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② '신풍의 병사를 통솔하여, ~ 어찌 우리를 당해 내겠느냐?'에서 자기 군대의 위력을 과시하며 자발적 항복을 종용하고 있다. ③ '너희 '근심의 성'이 우환이 된 지 오래다. ~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해서 안 될 줄 안다.'에서 상대방으로 인한 폐단이 심함을 지적하며 공격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다. ④ '살아서 시름겁고 한스러운 것이 해골의 즐거움만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에서, 상대방 우리가 지닌 시름과 원한 같은 심정에 동조하며 그것을 위로하고 있다.
- 5 ㉠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심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근심의 성' 때문에 힘겨워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수심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② 국양이 세상의 불평한 일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의 불균형을 술로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올바른 길'은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⑤ 공방이 국양과 대대로 교분이 있다는 것은 예로부터 술을 마시는 데는 돈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 04 위경천전

본문 286~29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6 소속방의 시에서는 봄의 계절을, 위생과 김생의 시에서는 가을의 계절을 알 수 있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08 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편집자적 논평은 찾아볼 수 없다.
- 11 소속방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영웅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 16 소속방은 위생이 전쟁터로 떠날 때 매우 슬퍼하며 통곡하다가 혼절했지만,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 18 김생은 위독한 위생을 위로할 뿐, 위생에게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④ 2 ④ 3 ③ 4 ③ 5 ③ 6 명재경각(命在頃刻) 7 위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위생과의 인연이 끊어져 버린 소속방의 상황을 의미한다.

1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만, 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편집자적 논평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위생과 심부름꾼의 말을 통해 각각 위생과 소속방 사이에 일어난 일과, 위생이 떠난 뒤 소속방에게 생긴 일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처음 만난 뒤 이별하였던 위생과 소속방이 혼인을 통해 재회한 뒤에 다시 전란으로 인해 이별하고 있다. ③ 전체적으로 시간의 자연적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⑤ 삽입 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문 서술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있다.

2 ‘이별의 한이 결국 병이 되어 남은 목숨이 실낱과 같습니다.’라는 소상국의 편지 내용과 “아씨는 마침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라는 심부름꾼의 말을 통해, 결혼 전 소속방은 위생이 찾아오지 않자 상사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소상국은 위생이 소속방에게 보낸 시를 본 것이 아니라, 소속방이 쓴 ‘그리움’을 노래한 시를 보고 소속방에게 사실을 캐물은 것이다. ② 위생의 부친이 소속방에 대해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위생에게서 소속방과의 일을 듣자 곧장 소속방의 집에 혼인을 청하려 했을 뿐이다. ③ 김생은 위생의 병이 위독한 것을 보고 위생을 곁에서 보살피며 위로하였을 뿐, 위생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았다. ⑤ 전쟁에 참가한 위생은 소속방을 몹시 그리워하며 쇠약해졌지만, 부친인 장군에게 귀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3 소속방이 위생의 ‘소식을 수소문’한 것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볼 수 있지만, 아버지인 소상국에게 ‘모든 사정을 남김없이 털어놓’은 것은 이와 거리가 멀다. 소속방이 위생과의 일을 털어놓은 이유는 소상국이 그녀가 쓴 ‘그리움’을 노래한 시를 토대로 사정을 캐물었기 때문이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털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위생이 ‘소상국 맥’의 ‘답정을 엿보는 죄를 범’했다는 것은 소속방과 밀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어져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두 사람의 첫 번째 만남과 이별로 볼 수 있다. ② 소상국이 소속방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는 위생의 부친에게 자식을 간의 혼인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로 인해 위생과 소속방은 혼인을 한다. 따라서 소상국이 편지를 보낸 것을 조력자의 도움으로 볼 수 있다. ④ 소속방과 다시 만나 부부가 된 위생이 전쟁이 발발하자,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 참전하게 되는 상황은 외부 요인에 의한 두 번째 만남과 이별로 볼 수 있다. ⑤ 위생은 ‘낯선 땅 낯선 곳에서’ 집에 ‘돌아갈 생각’만 간절하여 당장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상황에 처한다. 이는 위생과 소속방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날 것임을 암시한다.

4 소상국이 위생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상대방의 심정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난새가 죽으면 봉황새도 스러지나니, 만일 부부의 정을 가로막는다면 천지가 다하도록 부모의 마음이 어떨겠습니까?’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암시하며 두 사람의 혼례를 올리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의 수용을 유도하고 있다. ② ‘꽃이 이슬에 젖듯 달이 구름을 헤치듯, 홀로 지내며 생긴 원한을 떨치지 못하였으니,’와 ‘초나라의 진귀한 옥이 이미 깨지고 진나라의 난새는 모여들지 않으니,’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딸의 지난 행동과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전체적으로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호소하듯이 자신의 딸인 소속방과 상대방의 아들인 위생의 혼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속히 좋은 날을 잡아 혼례를 올리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에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⑤ ‘모

쪼록 귀덕에서 저희 집의 한미함을 탓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에서 자신의 가문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가문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고 있다.

5 [B]와 [C] 모두 가을의 계절적 배경이 제시될 뿐, 계절의 변화 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B]는 ‘뿔피리 소리 군막에 울리네’와 ‘기러기는 울며’에서, [C]는 ‘힘차게 우는 백마’와 ‘피리 소리에 강남의 조각달 서늘하구나.’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B]는 1구와 2구에서, [C]는 3구와 4구에서 전경 묘사를 활용하여 각각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④ [B]의 ‘기러기’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화자(위생)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이다. 하지만 [C]에는 이러한 자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백마’는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이다. ⑤ [C]의 ‘용검 휘둘러 누란 처부술 날 그 언제런가.’에서 앞으로 있을 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자 하는 포부와 기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미래 지향적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B]에는 의문형 문장이나 미래 지향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6 명재경각(命在頃刻):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오답 해설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반포지효(反哺之孝): 까마귀 새끼가 지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 오매불망(寤寐不忘): 지나 깨나 잊지 못할. / 학수고대(鶴首苦待):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05 달천몽유록 본문 293~299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 03 파담자는 달천 강가에서 신립과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이나 이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 06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고개를 떨구고 머뭇머뭇 발걸음을 주저하며 입을 우물거려다가’에서 신립의 외양을 묘사하여 다른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외양 묘사를 통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9 파담자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이자 귀신들 앞으로 나아가 인사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다.
- 13 병사 귀신은 병사들이 “관문을 훌쩍 뛰어넘고 수레의 끝채를 끼고 달릴 만한 용력과 큰 쇠뇌를 쓰고 쇠뿔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것처럼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 16 신 공이 자신이 세운 공을 부각하여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 우월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④ 3 ① 4 ④ 5 ④ 6 “아아 어디로 돌아가리? 나 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7 파담자는 소극적 참여자로서, 인물들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1 파담자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을 서술한 것으로, 전투에서 죽어 귀신이 된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이야기를 파담자가 듣는 형식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고개를 떨구고 머뭇머뭇 발걸음을 저저하며 입을 우물거리다가’에서 신 공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그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인물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는 특정한 소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파담자가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지만, 시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건의 전말을 보여 주는지는 알 수 없다. ⑤ 귀신들의 말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2 신 공은 적이 침략해 오자 ‘싸움터에서 죽겠다고 결심’하여 왕에게 간절히 아뢰었고, 임금이 이에 감동하여 신 공에게 대장군의 권한을 주어 적과 싸우게 한 것이다. 따라서 신 공이 임금이 명을 내리자 어쩔 수 없이 전장에 나갔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고사와 읍시는 풍자하는 의미가 깊고 ~ 그 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마침내 팔 척 내 몸을 만 길 강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 두 길로 나누어 지킨단 말인가?’, “오랑캐들의 실태를 꿰뚫어 보고 ~ 마복군의 아들 조팔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충주 지체가 험하여 충주 관문만 제대로 지켰으면 “승리가 분명”했을 것이라는 병사 귀신의 말을 통해, 그가 충주 관문을 제대로 지켰다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거라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 “저는 본래 장수 집안의 후예요 ~ 임금의 칭찬을 받았습시다.”에서 신 공은 자신의 과거 내력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에서 옛사람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고사 속 인물인 ‘이평’을 언급하여 자신의 무예가 뛰어남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디로 돌아가리? 나 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에 의문형 문장이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맑은 강과 급한 여울은 슬피 울고,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를 통해,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낙관은 찾아볼 수 없다.

4 ㉠에서는 신 공의 행동을 묘사하여 다른 귀신들 앞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신 공의 성격이 소극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파담자가 읊은 시에 귀신들이 감동받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파담자의 시 쓰는 능력이 탁월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에서는 중국의 축도, 정형구와 비교하여 충주의 지세가 험함을 부각하고 있다. ③ ㉠에서 병사 귀신은 신 공이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위엄을 내세워 제 고집만 부리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밝히고 있다. ⑤ ㉠은 신 공이 이룩한 업적으로, 이를 통해 신 공은 자신의 공을 강조하고 있다.

5 세운 공이 미약하다고 한 것은 신 공이 스스로 자신이 세운 공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금이 신 공에게 대장군의 권한을 일임했다는 것을, 전쟁 패배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는 지배층의 인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보기>에서 전

쟁 패배의 원인을 국가 제도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점을 이 글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한 귀신이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파담자를 보고 미소 지으며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다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파담자는 귀신들 앞으로 나아가 인사하고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②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여 일을 망친다는 병사 귀신의 말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장수인 신 공, 즉 개인에게 돌리는 말이라 할 수 있다. ③ 병사 귀신은 신 공에게 자신이 말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 주시면 참으로 다행”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귀신들이 파담자를 자신들의 대화에 끌어들이는 이유가 자신들의 생각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기 위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신 공은 항우와 제갈공명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신 공 자신의 전쟁 패배 역시 하늘의 뜻 때문이라는 것으로, 전쟁 패배의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6 조웅전

본문 300~306쪽

기본 실력 다지기

03 꿈과 현실의 교차는 드러나지 않으며, 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제시된다.

06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07 철관 도사가 머무는 곳이 깊은 산중이기는 하지만 초월적 공간이 아니며, 현실적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08 조웅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1 노옹은 응을 만나기 전에 천기를 통해 그가 유리걸식하는 줄을 짐작했다.

12 노옹은 ‘남방으로 칠백 리를 가면’ 나오는 ‘관산’에 철관 도사가 있다는 것을 응에게 알려 주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⑤ 3 ② 4 ④ 5 ⑤ 6 진실로 팔목상대(剖目相對)라. 7 이 글은 ㉠에 해당한다. 첫 번째 근거는 조웅이 노옹으로부터 ‘조웅검’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근거는 조웅이 철관 도사로부터 여러 술법을 배우고 ‘용마’를 얻었다는 것이다.

1 주로 조웅과 노옹, 조웅과 철관 도사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 사이의 관계를 알려 주는 매개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② 주인공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조웅이 노옹이나 철관 도사와 만나는 것을 재회라고 할 수 없다. ⑤ 현실적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 철관 도사가 높은 암말이 낳은 용마에 대해 ‘사람이 임의로 이끌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일부러 길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길들이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노옹의 두 번째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철관 도사는 웅이 벽상에 쓴 글을 보고 나서야 동자를 시켜 웅을 데려오게 하였다. ④ ‘술법을 배우니’ ‘노옹의 일을 모를 것이 없더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조옹의 위기를 예고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를 읽은 철관 도사가 조옹을 불러오게 하므로 조옹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철관 도사를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조옹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④ 자신을 날아오르는 용에 비유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고자 하는 조옹의 포부를 드러낸다. ⑤ 사건 전개 과정에서 운문을 삽입함으로써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하게 한다.

**4** 웅이 말을 마구간에 매어 둔 것은 사나운 말이 자신에게만은 순응하였으므로 기뻐기 때문이다. 이미 웅의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말이 사람을 해칠까 염려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노옹이 ‘하늘이 보검을 주시매 임자를 찾아 전코자’ 사방을 다닌 것과 ㉠에서 ‘그대의 보배’라고 말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동자의 ‘이제야 와서 청하시나이대.’라는 말과 ㉡의 ‘여러 번 고생’했다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철관 도사는 웅으로 하여금 여러 능력을 갖추게 하고 웅에게 용마를 주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⑤ ‘그대의 운수’라고 한 데서 철관 도사가 하늘이 정한 웅의 운명을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보기>에 따르면, 소대성과 조옹이 영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두 가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대성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고, 조옹은 ‘간신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해서’ 나라를 구했다. 소대성이 ‘선천적으로 무예와 도술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 조옹은 ‘스승을 찾아’ ‘긴 수련의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에서 이 글이 ‘선천적으로 초월적 힘이 주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소대성 전」보다 ‘주인공의 현실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부각’시킨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등장인물의 수’의 증가는 이 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을 다양한 측면이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②, ③ 부각하고자 하는 대상이 ‘대사나 도사의 신비한 능력’이나 ‘스승의 존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시련이 보다 ‘단계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사건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07 이대봉전** 본문 307~314쪽

기본 실력 다지기

- 02 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5 ‘외당, 내정, 승상의 집’ 등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만,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 10 장 소저는 왕희의 아들 석연이 자신을 데리러 오자 납치당할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왕희의 납치 계략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 15 왕희는 장 소저로 변장한 난향을 죽이려 하지만, 난향의 충심을 높이 산 주위의 빈객들이 말리자 난향을 풀어 주고 있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 ㉠ 2 ㉡ 3 ㉢ 4 ㉣ 5 ㉤ 6 난향, 희 씨 7 남장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무예를 익힌다.

**1** ‘강약이 부동(不同)하니 어찌 당하리오?’, ‘재주는 능히 풍운조화를 부리고 용력은 능히 태산을 끼고 북해를 펼 듯하더라.’ 등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난향이 처한 상황과 장 소저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장 소저는 여람으로, 난향은 장안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장 소저와 난향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③ 공간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만, 공간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④ 현실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다.

**2** ‘장 소저가 그날 밤에 도망하여 남으로 향하여 정처 없이 가더니, 수일 만에 여람 땅에 이르러’를 통해 장 소저가 ㉠을 떠올려 그곳으로 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난향은 ㉠에서 죽으려 수건으로 목을 졸랐으나, 왕가 노복에 의해 죽지 못하고 ㉡으로 이동하게 된다. ② 난향은 ㉢에서 자신이 장 소저로 변장한 것임을 일리고 왕희를 비난하는데, 이는 왕희가 난향을 죽이고자 하는 계기에 해당한다. ③ ㉠에서 석연이 장 소저를 납치하고자 하는 사건으로 인해 장 소저는 ㉡으로, 난향은 ㉢으로 이동하게 된다. ⑤ 장 소저는 ㉢에서 희 씨를 만나 희 씨의 집에 머물면서 학업에 힘쓴다.

**3** 희 씨는 남장을 한 장 소저가 여성인 줄 모른 채 그녀에게 학업을 권하며 공명을 취하라고 하고 있다. 즉, 희 씨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간절히 바라는 장 소저에게 공명을 취하라고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장 소저는 석연에게 납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영웅인 장 소저가 겪는 시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장 소저가 남장을 하고 도망친 뒤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남장 모티프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장 소저는 끊임없는 정진 결과 풍운조화의 재주를 부리고 뛰어난 용력까지 얻게 되는데, 이는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희 씨는 장 소저를 보고 인물이 비범하며 풍채가 준수하다 여기고 있다. 이러한 장 소저의 모습은 영웅으로서의 비범한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난향은 함께 피신하지는 장 소저의 말을 듣고, 자신까지 피신하면 왕가 노복이 근처로 흠어져 기를 쓰고 장 소저를 찾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난향이 함께 피하지는 장 소저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장 소저를 위협이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희 씨는 장 소저를 보고 인물이 비범하며 풍채가 준수하다 여기면서, 장 소저에게 “행색을 보니 본대 걸인이 아니라.”라고 말하였다. ② 난향을 죽이려는 왕희의 말에 진처에 참여한 빈객들은 난향이 충성스러운 시녀이니 그 죄를 용서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빈객들은 난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③ 장 소저의 말을 통해 장 소저가 왕희의 청혼을 거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희는 장 소저의 거절에도 자신의 지식인 석연을 시켜 강제로 장 소저를 납치하려 했다. ⑤ 난향은 장 소저가 납치당할 위기에 처하자 장 소저로 변장하여 장 소저 대신 왕희가 있는 장안으로 끌려간다. 따라서 난향은 장 소저를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5** [A]에서 난향은 장 소저가 죽으면 부모 제사와 낭군의 원수를 누가 갚느냐고 반문하면서 죽지 말고 피신하라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물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죽으려는 장 소저의 행동을 만류

하고 있지, 장 소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② [B]에서 난향이 상대방인 왕희의 지위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비난하고 있지만, 왕희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부모의 죽음이라는 과거 일을 언급하고 있으나, 장 소저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B]에서 난향이 상대방인 왕희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다.

## 08 춘향전

본문 315~321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
- 08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 13 춘향은 사령과 관노들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도령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 17 춘향이 절개를 지킨 기생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사또가 아니라 회계 나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④ 3 ② 4 ① 5 ⑤ 6 해서 기생 농선이는, 총렬문에 들어 있고, 7 춘향은 이 도령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하나, 사또와 회계 나리는 춘향을 기생으로 인식하여 수청 요구를 함으로써 갈등하고 있다.

- 1 이 글의 인물들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유형의 인물들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변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해설** ① 춘향과 사또, 춘향과 회계 나리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②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해서 기생 농선이는 동선령에 죽어 있고, ~ 평양 기생 월선이기도 총렬문에 들어 있고.”와 “모반과 대역하는 죄는 ~ 엄한 형벌과 함께 귀양을 보내느니라.”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⑤ ‘망측한 환을 당해 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요.’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이 도령과 이별한 춘향의 처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2 춘향은 이 도령과 이별한 후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하여’ 울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도령을 ‘오매불망(자나 깨나 잊지 못함.)’ 기다리며 수절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수노는 춘향의 내력을 사또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 춘향과 ‘동병상련(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의 처지는 아니다. ② 이방과 호장은 춘향을 불러오라는 사또의 명에 춘향을 부를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며 사또를 만류하고 있으므로 ‘수수방관(뺨뺨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춘향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며 자신의 지조를 꺾지 않고 있으나 ‘안하무인(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⑤ 춘향은 회계 나리에게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므로 ‘자가당착(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없다.

- 3 춘향의 외모가 무척 아름다운 것은 고전 소설 속 주인공의 전형적인 설정으로, 양반 계층과 서민 계층의 요구 반영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춘향이 ‘일부종사(一夫從事)’를 바란다는 것은 여성의 정절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이 된다. ③ 신분의 차이가 나는 춘향과 이 도령이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④ 신분상 차이가 나는 춘향과 이 도령이 만나 사랑하게 되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신분적 제약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조선 후기 민중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총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되거나 열녀는 두 자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전통적 유교 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이는 전통적 유교 윤리를 신봉했던 당대의 지배층이 이 글을 향유하고 권장하는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이 글의 춘향은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하여’ 울고 있으며, <보기>의 춘향은 ‘어린 가슴 달콤히 지켜 주는 도련님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의 춘향 모두 대상(이몽룡)을 그리워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춘향을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③ 춘향의 말을 통해 춘향의 생각을 드러낸 것은 이 글에만 해당한다. <보기>에는 춘향의 말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보기>의 춘향 또한 이 글의 춘향과 마찬가지로 지고지순하게 도련님을 기다리며 정절을 지킨다는 점에서 유교적 가치관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⑤ 춘향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이 아니라 <보기>('옥사(獄死)')이다.

- 5 ㉠은 지조를 지키는 것을 나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여김을 나타낸 것이다. 자신이 이 도령을 배반하면 사또 역시 나라를 배반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사또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춘향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춘향을 만나 보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② 이 도령은 춘향을 잊고 춘향 혼자 정절을 지키다가 늙어 가게 될 상황을 가정하여 춘향이 자신의 수청을 들도록 설득하고 있다. ③ 자신의 정절을 시험당하는 상황이 죽는 것보다 못 하더라도 이 도령에 대한 지조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춘향을 기생으로 인식하여, 기생에게는 충성과 절개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춘향이 절개를 지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 09 서대주전

본문 322~328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일대기적 구성은 찾을 수 없다.
- 06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벌어지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 11 서대주는 원님 앞에서 ‘심한 두려움이 온몸에 엄습하여 떨릴 떨며 앉았’다가, 원님의 물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 12 원님은 서대주의 죄상을 심문하려 했지만, 날이 이미 저물어서 심문하기 어렵다는 형리의 제안에 서대주를 하옥한다.
- 14 원님이 재판관을 연 근거가 된 고소장은 서대주가 아닌 타남주가 제출한 것이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① 3 ⑤ 4 ⑤ 5 ③ 6 ㉔: 타남주, ㉕: 서대주 7 물질적 가치가 우선되는 배금주의적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1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등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내면 심리를 묘사한 것은 아니다. ③ 액자식 구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과장된 비유나 급박한 상황 모두 찾을 수 없다. ⑤ 현재와 과거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2 서대주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타남주가 평소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과 타남주가 원한을 품고 자신을 고소했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타남주를 모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대주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타남주나 원님을 조롱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서대주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 관철을 위해 여러 조건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④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재처럼 식어 버렸으니,” 등과 같이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서대주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타남주를 모함할 뿐, 원님이나 타남주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3 타남주가 귀양을 간 것은 원님의 무능한 판단으로 인한 것이며,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서대주의 모습을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짝거’리다고 표현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동물의 외형’과 관련이 있다. ② 옥졸은 서대주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편의를 봐 주는 부패한 관리를 나타낸다. ③ 서대주는 죄를 짓고도 원님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간교한 인물이다. ④ 원님은 서대주의 진술을 들은 후 그가 무고하다고 믿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무능한 판관을 나타낸다.

4 타남주는 서대주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며 서대주를 고소했다.

오답 해설 ① 원님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서대주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② 타남주는 잘못이 없었지만 원님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벌을 받았다. ③ 서대주는 간교한 말로 원님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④ 서대주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애썼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5 서대주의 죄(도적질)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보기>는 서대주를 부정적으로, 타남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덕행의 중요성(①)과 함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교훈을 강조(⑤)하고 있다. 그리고 송사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당대 재판 제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④)하고 있다. 작품의 결말과 다른 후일담(②)은 사건을 잘못 평가한 당대 사회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10 정을선전 본문 329~335쪽

기본 실력 다지기

02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07 금섬을 억울하게 죽은 인물로 볼 수 있지만, 금섬의 죽음을 통해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10 유 부인이 정을선을 원망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2 옥졸들은 금련에게 옥중의 죽은 시신이 유 부인과 다름을 누설치 말라고 당부했다.

15 왕비는 자신이 조 씨의 꾀에 빠져 유 부인을 죽일 뻔했다며 탄식할 뿐 조 씨의 탓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는 않다.

16 조 씨가 조왕의 딸이고 승상의 부인이니 참형은 과하다고 한 것은 신하들의 의견이다. 조 씨는 자신의 처결을 정을선에게 임의대로 하라고 하였다.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① 2 ⑤ 3 ③ 4 ④ 5 ③ 6 왕비 7 서술자가 개입하여 이전에 벌어진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1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교차하여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정을선이 옥졸들과 금련을 직접 심문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사건의 전말과 진상이 자세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③ 정을선은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단 상소를 올려서 천자의 판단에 맡긴 후, 신하들의 조언을 들은 천자가 내린 비답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④ 악인인 조 씨와 금련은 죽게 되고, 선인인 금섬은 후히 장사 지내고 총렬문을 세운 후 그 부모를 속량시켜 주었으며, 월매에게도 노비 전답을 주어 일생을 편케 해 주었는데, 이를 통해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⑤ 정을선은 서용의 반란에 출정하여 이를 정벌하는 등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던 중 돌아와 조 씨의 악행으로 빚어진 가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있다.

2 조 씨가 유 부인의 방에 간부가 있다고 꾸며 왕비로 하여금 유 부인의 부정(不貞)을 확인하게 하여 유 부인을 위기에 빠뜨려 모함한 것이 악행의 핵심이다.

오답 해설 ① 조 씨가 금련을 금으로 매수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② 금련이 남복을 입고 간부인 척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악행의 과정과 방법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③ 조 씨가 거짓으로 병든 체하여 유 부인의 침소에 금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악행을 실행하는 과정과 방법의 일부일 뿐,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④ 금련이 남장을 하고 병풍 뒤에 숨어 있는데 유 부인이 침소에 돌아가게 하여 유 부인의 부정(不貞)을 거짓으로 꾸미는 악행의 과정과 방법의 일부로,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3 유 부인 제거에 대한 ‘1차 위해’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조 씨와 금련 정도이고, 왕비나 유 부인 측 사람들은 아무도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유 부인이 당한 것은 맞다. 그러나 조 씨가 유 부인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유 부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2차 위해’의 계획을 유 부인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월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2차 위해’에 대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차 위해’에서 조 씨는 유 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다고 꾸미는데, 이는 금련의 남장을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2차 위해’에서 조 씨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월매를 취조한다. ② ‘1차 위해’에서는 왕비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 씨의 실행에 가담하지만, ‘2차 위해’에서는 가담자 없이 조 씨 혼자 실행에 나서고 있다. ④ ‘1차 위해’에서 조 씨는 왕비에게 유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려 유 부인을 죽이려 했고, ‘2차 위해’에서는 직접 월매를 취조하여 유 부인의 거처를 알아내려고 했다. ⑤ 옥에 갇혔던 유 부인을 대신해 금섬이 대신 죽음으로써 ‘1차 위해’에서 조 씨의 계획은 좌절된다. 또한 ‘2차 위해’에서는 유 부인을 찾기 위해 조 씨가 월매를 취조하지만 월매는 유 부인의 거처를 발설하지 않는다. 따라서 또다시 조 씨의 계획은 좌절된다.

4 유 부인은 주동 인물, 조 씨는 반동 인물에 해당하지만, 유 부인이 직접 나서서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조 씨를 제거하고 있지 않다. 악행을 저지른 조 씨를 제거하는 사람은 유 부인이 아니라 정을선이다.

오답 해설 ① 금섬과 월매는 중심인물인 유 부인의 역할 수행을 보조하는 인물이고, 금련은 중심인물인 조 씨의 역할 수행을 보조하는 인물이다. ② 보조 인물인 금섬은 중심인물인 유 부인을 대신하여 옥에서 죽는데,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③ 결국 사랑을 성취하는 인물은 정을선과 유 부인이므로, 주동 인물은 정을선과 유 부인, 반동 인물은 조 씨에 해당한다. ⑤ 반동 인물인 조 씨를 도와 악행을 저지른 금련은 벌을 받고, 주동 인물인 유 부인은 도운 금섬과 월매는 보상을 받는데, 이는 권선징악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5 ㉠은 조 씨의 제략에 넘어가 거짓 정보에 현혹되어서 아직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유 부인의 부정(不貞)을 믿고 있는 왕비의 말이다. 반면 ㉡은 조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힌 정을선의 상소에 대한 반응이므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인물의 심성이나 도량과는 관련이 없다. ② ㉠과 ㉡ 모두 말하는 사람 자신의 판단이 반영된 표현이다. ④ ㉠과 ㉡ 모두 정을선에 대한 격려나 질책으로 볼 수 없다. ⑤ ㉠과 ㉡ 모두 정을선의 가정사, 곧 사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 11 삼선기

본문 336~342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2 주로 작중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 05 이춘풍은 두 남자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꾸짖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도 두 남자와 백 년을 함께할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된다.
- 06 두 남자는 흥도화와 류지연으로 인물만 다를 뿐,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07 이생이 도학자의 삶을 청산하기는 하지만, 이는 두 남자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변화된 것이다. 두 남자의 고백에 대한 이생의 반응으로 보아, 처음부터 도학자적인 자신의 삶에 염증을 느껴서 청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10 흥·류 두 문생으로 변장한 두 남자는 각각 성천과 안주에 간다고 했지만, 이는 이생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임을 토로하고 있다.
- 15 ㉠: ㉡-두 문생이 여자임을 알지 못하고 지기지우로 삼은 것이다. / ㉢: ㉡-이춘풍을 보고 한눈에 반해 그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한 인물들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③ 2 ② 3 ④ 4 ① 5 ② 6 기생의 모가비 7 자신들의 재물은 모두 이생이 좋을 대로 쓰고, 모든 일은 그의 뜻에 따라서 할 것이다.

1 이 글의 주인공, 곧 중심적 인물은 이생이며, 주변적 인물은 두 남자(흥도화, 류지연)이다. 주변적 인물인 두 남자가 중심적 인물인

이생을 변화시켜 본래 그들이 원하는 ‘함께 사는 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남자와 이생 사이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② 도학자적 삶에 얽매어 있는 이생이 인간의 자유로운 성격에 눈을 뜨고 현실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어 나간다. ④ 두 기녀가 한때는 평양 객점에서 흥·류 두 문생(門生)으로 변신하여 경학 강론에 참가하기도 했고, 두 남자(선녀)가 되어 이생을 산 위로 유인하여 연분을 맺기도 했으며, 지금은 자신들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실직고하고 있다. ⑤ 두 남자는 자신들에 대한 이생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문생’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2 ㉠은 이생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두 남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한 뒤 용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반영된 극존칭의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속세에서 온 손님’이라는 뜻으로 이생(이춘풍)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이생은 두 남자를 선녀로 착각하여, 그 둘과 달리 자신은 속세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속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③ 두 남자는 ‘백 년을 함께 사는 일’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꾸었다며 자신들의 의중을 드러내고 나서 ‘(대)군자’라는 표현에서, ‘서방님’으로 이생에 대한 호칭을 바꾸고 있다. ④ ‘학문을 닦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생은 자신이 아직 학문이 부족하여 두 남자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며 자책하고 있다. ⑤ 이생은 경학하던 선비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두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갈등하였다.

3 이생은 다른 선비들(문생들)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이동해 사회적 자아를 성장시켰고, 두 남자를 만나 현실에 눈을 뜨고 역할을 수행함(기생의 모가비가 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두 남자가 문생으로 변신하여 이생에게 지기지우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이 이생과 함께해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성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② 이생은 두 남자와의 만남에 따라 현실에 눈을 뜨면서 정체성(사회적 자아)을 탐구해 나간다. ③ 이생은 미숙한 존재에서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반면, 두 남자는 이미 확보한 정체성을 토대로 이생을 변화시켜 나간다. ⑤ 사회적 자아가 성숙되어 더 이상 정체성의 탐구가 필요 없는 최고의 경지가 결국 ‘신선’에 해당한다.

4 [A]는 흥·류 두 문생으로 위장했던 두 남자가 이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생에게 ‘평생을 모’시고자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한 일종의 복선(伏線)이다. 이 말에 대해 이생이 그럴 리가 없지만 범절과 모양이 두 문생과 같은 여자가 있으면 생각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 두 남자는 이생에게 이실직고를 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② ‘남화위녀(남자가 변화하여 여자가 됨)’가 비현실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라는 경고의 말은 아니다. ③ 이생이 직접 ‘너희들을 겁주려 하옵은 아니라’며 밝히고 있다. 즉, 자신이 ‘너희들과 백 년을 함께 할’ 생각이라는 것을 은연중 밝힌 부분이다. ④ 두 남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말이다. ⑤ 이생 자신도 두 남자와 ‘함께할’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는 말이다.

5 ‘조롱이 심하다.’는 정보가 통제된 자가 실제로 자신이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기보다, 두 남자가 한 말이 믿기지 않아서 한 말이다. 바로 앞에서 두 남자가 ‘낭군이 항상 허황한 일을 믿지 아니하시거니와’와 연결해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허황한) 일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생(정보가 통제된 ‘특정 작중 인물’)은 두 남자가 남장을 하고 문생(門生) 노릇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③ 독자들은 정보의 통제가 이생과 함께 살고자 하는 두 남자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④ 나중에 두 남자가 ‘지척에 있을을 서방님 눈에 띄지 않게’ 있었다고 그 전말을 밝히기 전까지 정보가 통제된 ‘특정 작중 인물’ 이생은 ‘홍생이 성천에 간 지취가 분명’하다며 잘

못 판단하고 있었다. ⑤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은 이생 자신의 일므로 이생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통제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 12 송경운전

본문 343~350쪽

### 기본 실력 다지기

- 03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어 있지 않고, 두 사람이 친해지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주에서의 조우 다음에 그보다 과거인 서울에서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 04 배경 묘사를 통해 시대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10 두 사람은 서울에서부터 교분이 있던 사이이다.
- 12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고 있지 않다.
- 13 송경운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무심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15 송경운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것은 그의 비파 연주 실력 때문이다.
- 17 화려한 연회 등에서 비파를 연주했으나, 그의 삶 자체가 방탕했던 것은 아니다.
- 19 ‘근방의 고을 수령이나 절도사 등이 틈을 보아 먼저 데려가려고 다들 지경이었으므로 그가 집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로 보아 잘못된 내용이다.

### 내신·수능 대비 문제

1 ② 2 ④ 3 ④ 4 ① 5 ④ 6 ④ 7 관용어, 일상어 8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음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음악이 될 수 있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1 무심자는 ‘전주성 서쪽을 따라 얼음 고개를 오르’다가 송경운을 우연히 만났는데, ‘예전에 그와 교분이 있었기에 웃으며’ 대화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이 전주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서울’에서 살던 송경운과 무심자가 모두 ‘전주’로 낙향한 것은 맞다. 하지만 송경운의 고향은 서울이고 무심자의 고향은 이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③ ‘선생님은 옛날에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던 분’이라는 송경운의 말을 통해 무심자가 ‘서울’에서 조정의 벼슬아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전주’에서 재기를 노린다거나 이를 위해 송경운을 포섭했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은 없다. ④ 송경운은 ‘서울’에서 화려한 연회 자리에 나가 연주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방탕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⑤ 송경운은 ‘전주’에서도 ‘근방의 고을 수령이나 절도사 등이 틈을 보아 먼저 데려가려고 다들 지경이었으므로 그가 집에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그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연주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2 시대 상황과 관련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전주에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극진히 대하며 정성을 다해 연주했다는 일화를 제시하여, 송경운의 겸손하고 정성스러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② ‘체구가 훗칠하게 컸고 ~ 말하자면 참으로 호남자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송경운은 서울 사람이다. ~ 반평생 역시 이렇게 지나간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언젠가 그와 함께 음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운은 이런 말을 했다.’와 그 이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송경운이 뛰어난 외모와 언변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외모와 언변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비파 연주 실력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옛날에 이 절도사의 노복이었는데 민첩하고 재주가 있어 특별히 노비 정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군공으로 사과 벼슬까지 얻었다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는 타고나길 유독 음률을 잘 알았다. ~ 열두어 살에는 서울과 그 근방까지 이름이 났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비록 별 볼 일 없는 하인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이렇게 응대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을 통해, 송경운이 부르는 노래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사대부의 처세를 다룬 작품으로, 송경운의 처지와는 관련이 없다. 서술자는, 그의 자유롭고 호탕한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 ㉠을 인용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을 통해, 북적거리는 연회에 가면 으레 송경운을 보고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좀처럼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송경운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③ ㉠을 통해,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연주해 주는 이유에 대한 송경운의 말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겸손하고 정성스러운 송경운의 인물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을 통해, 최고의 연주 실력을 지녔으면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송경운의 태도에 대한 전주 사람들의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⑤ ㉠을 통해, 음악에 대한 송경운의 말을 제시하면서 그의 음악관을 보여 주고 있다.

- 5 <보기>는 송경운이 작가인 자신을 알아보고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A]를 부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A]의 내용이 무심자 자신의 상황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를 담아 선택하고 부른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무심자는 ‘옛날에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다가 지금은 전주로 낙향해 있는, 곧 강호에 있는 상황인데, 송경운이 부른 [A]는 군신의 도리를 다한 후에 강호에서 살겠다는 내용으로, 군신의 의리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노래이다. 따라서 둘을 연결하면, 무심자에게 진정으로 군신의 의리를 다했는지 반성하게 하는, 즉 군신의 의리를 망각해서는 안 됨을 상기시키는 의도로 부른 노래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①)이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②)은 [A]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 ③ [A]는 강호에서 누리는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A]는 강호에서의 삶보다 군신의 의리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6 ‘나’와 송경운은 허물없이 친근한 태도로 대화하고 있다. ‘나’는 권위를 내세워서 말하고 있지 않으며, 송경운 역시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내세워 상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두 사람 모두 일부러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친근감을 드러내기 위한 농담에 불과하다. ③ 송경운은 ‘나’가 자신에 대해 말한 방식, 즉 상대방의 처지를 비하하는 것처럼 말한 후 상대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나’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⑤ ‘나’는 “그렇게 마음껏 노래하는 건 어째서인가?”, 송경운은 “어째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 질문들은 실제로 답을 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질문의 형식을 이용하여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